



“세계 명문大로 도약할 축이 되길”

2학기 동창회 장학금
13억6천여 만원 전달



본회는 지난 8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2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관련기사 3~5면>

10월 21일 일요일에 만나요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

제33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대회를 오는 10월 21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해 교내(미술관·박물관·규장각)를 탐방하거나 관악산을 등반하고 교내 버들골에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과 좋은 만남과 추억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12년 10월 21일(일요일)
오전 9시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대회장소 : 모교 노천강당 앞 버들골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 가족

△참가회비 : 없음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등

△경 품 : 풍성한 선물 추천
(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문의전화 :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서울대학교 총장 吳然天

관악출추

고교졸업생의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의 교육열기는 늘 긍정과 부정의 잣대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어쨌든 이런 과열현상에서 우리의 대학들은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해왔고 그런 경쟁 속에서 서울대는 나라의 굴지의 학교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서울대만 홀로 독주한 것은 아니고 상호 경쟁해온 명문 사학과 일부 지방국립대도 비슷한 반열에 오를 만큼 발전했다.

요즘 정치권 일부에서 서울대를 폐지하거나 국공립대학의 혼합네트워크로 대학서열을 없애고 지역균형발전을 해보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21세기 글로벌시대에 합당한 얘기로 볼 수 없다.

이런 논란의 근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서울대 출신이 지나치게 독주한다는 우려의 시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 측 자료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40대 이하의 서울대 출신 점유율이 60%까지 낮아지고 있어 과거의 독점이라는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서울대가 학생선발에서 전국 군 단위 고교에도 문호를 개방해 이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에 나섰다는 점이다.

우리는 허울 좋은 평준화 논리에 한가롭게 머무를 시간이 없다. 맹목적인 경쟁은 위험이 수반되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는 선의의 경쟁으로 선두주자가 탄생하고 뒤따라 차상위 그룹도 함께 발전하는 상향평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다.

가상이지만 서울대가 폐지되면 여타 우수학교가 선두자리를 대체한다는 평범한 상식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초고속 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국가동력은 우수한 교육, 우수한 인재라는 등식에서 나온 기획상품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고 오히려 제2, 제3의 서울대가 나올 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여러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은 대략 세계 10위권으로 볼 수 있는데 세계대학평가에서 모교의

위상은 37위로 더욱 분발해야 할 때라고 본다. 서울대가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도도 높았는데 여러 의구심이 끊임없이 나오는 일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보다 사회공헌도가 낮았는지, 자만이나 폐쇄성이 부각되지 않았는지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다행히 모교는 올해 숙원이던 법인화가 이뤄져 대학운영에 자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혁신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다. 제2의 중흥기로 미래로 부상하려는 모교의 큰 그림을 기대해본다.
(林炯斗논설위원)

미래로 부상하려는 모교

느리나무광장

참 오랜만에 교수님께 편지를 드립니다. 1988년 제가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소식 못 올렸으니 24년 만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교수님, 올해 100세가 되셨지요? 어쩌면 말씀하며 추억에 잠기던 사랑하는 어머님 곁에 계신지요? 교수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1985년 가을 학기였습니다. 따져보니 만 27년 세월이 흘렀군요.

교수님께선 南일리노이대에서 1950년부터 미국역사를 가르치고, 오스트리아와 버지니아대에서도 1968~1969년 교환교수를 하셨습니다.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서양사학과에서 두 학기 강의를 하셨을 때 교수님께 ‘미국사 특강’ 등을 수강했지요. 잘 들리지 않는 영어에 매주 쏟아지는 리포트 제출하느라 조금 고생했지만 이후 제게 큰 도움이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역작 ‘제임스 먼로 생애와 미국 정체성 연구’를 제게 주시며 써주신 글을 오늘 아침 다시 읽어봅니다.

“For Sang-ki, My friend and student with many wishes for the future study of history. Harry Ammon.”

교수님께서 머물던 당시 한국사회는, 특히 대학사회는 민주화 요구 시위와 최루탄 가스가 연일 하늘을 뒤덮었지요. 매운 최루가스로 괴로워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쿠바 출신 우고씨와 함께 신반포아파트에서 출퇴근하던 교수님은 제게 한국의 정치상황과 학생운동 등에 대해 자주 묻곤 하셨죠. 짧은 영어로 제 눈높이 정도의 설명밖에 못 드렸지만, 교수님께선 “한국이 민주화될 날이 머지않은

존경하는 해리 애먼 교수님!

李 相 起

아시아N 대표·발행인
본보 논설위원



것 같다. 학생들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교수님이 한국을 떠나신 꼭 1년 뒤, 그러니까 1987년 6월 마침내 이 땅에 민주주의의 서광이 비쳤습니다. 교수님의 예언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그 후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면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큼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교수님께 자랑해도 되겠지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한국에 계셨을 때와 비교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요.

올림픽, 월드컵, G20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걱정하시던 남북한 관계도 지금은 정제된 상태이긴 하지만, 정상들이 두 차례 회담을 가졌지요. 행정부는 20년째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이끌며 완전한 문민통치가 이뤄졌고요. 당시 서양사학과에서 러시아사를 가르치신 李仁浩교수님께선 여성 최초로 駐핀란드 대사와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지요.

60대 후반의 교수님께서 1년간 열정을 바치신 서울대도 학문이나 인적자원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캠퍼스에선 좀처럼 볼 수 없던 외국유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은 또 어땠고요. 존경하는 애먼 교수님. 이 가을, 교수님과 27년 만에 다시 서울대 교정을 걷고 싶습니다.

관악시단

아 내

柳 子 孝(불어교육68-75)
국제펜 한국본부 부이사장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를 위해 많은 것을 참고
희생의 의미까지 알게 한 여자
화장품을 고르는 손길이 어여쁘고
화장을 하는 손길이 어여쁘고
투정이 잔소리가 편안해지는
함께 여행하는 길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오직 그만의 여자
무척 자주 화나게 하는
자주 미워지는 여자
질투하는 여자
가여운 여자
미안한 여자
늘어가는 여자
한 남자가 자신보다 오래 살아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 뿐인 여자

동문칼럼

나는 북촌한옥마을에 산다.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한옥에 살고 있으니 최첨단 컴퓨터 엔터 치는 소리와 ‘빠~이격’ 때문 여는 소리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 어떻게 두 소리를 듣고 사는가? 2004년 내 남편은 갔다. 연하의 남자, 팔팔한 남편 가고 나니 그 충격으로 바닥을 헤맨다. 젖은 짚단 태우던 나날. “나교수, 전통을 해 보세요.” 서울대 미대 은사님인 梁承樞교수님께서 권고하신다. 이 말씀 한마디는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

우웃값도 없었던 이혼녀 조앤 톨링이 “내려갈 데까지 내려가니 이제 올라갈 일만 있었다”고 말하더니 아,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있겠구나. 전통이 끌고 가겠구나! 소목, 대목, 소반, 옷걸, 황절, 장석을 배우러 다녔다. 배우기만 하면 뭐하나? 뜻을 펴야지. 배우고 익히고 즐기는 체험장을 마련하자. 한옥을 2채(봉산재, 서로재) 마련했다. 전통문화 최고위과정 4기, 나성숙옷걸학교 11기를 배출했다. 언제 연분홍치마 휘날리는지 마른 잎 구르는지 모르게 살았다.

처음 한옥 사러 다닐 때는 쥐뿔 걸려 있던 철물점도 있었고 연탄

재도 나와 있어 30년전 영화세트장 같던 북촌이 연 22만명 관광객 몰려오고 공방도 30여 개. 게스트하우스도 50여 곳으로 변했다. ‘썩’하고 해 뜰 날이다. 물론 한옥도 많이 올랐다. 모두들 재테크 잘했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이미 가져갈 것도 아니니까.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전통을 알았다는 것, 죽기 전까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서양 냄새 물씬 나고 뉴욕에 어울리는 여자가 우리 전통과 행복하게 살아왔고 또한 살아갈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마음이 평안하다. 동양사상은 조화와 상생의 논리다. 서양은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라 했지만, 동양은 인간이 자연 일부일 뿐이다.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남이 자연 일부분이고 함

게 살고 나누고 베풀다 간다. 마음이 평안하다.

둘째, 웰빙. 5천년 동안 살아남은 전통은 이미 검증돼 인체에 유익하다. 김치가 그렇고 한옥이 그렇다. ‘6H’인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 국음악은 ‘우리 것은 참 좋은 것이야’를 외치고 있다. 아니 외칠 필요도 없다. 겪어보면 다 아니까.

셋째, 미래지향적이다. 전 세계 하드웨어는 결국 모두 같아진다. 자동차, 컴퓨터는 공통이 될 것이다. 차별화는 전통뿐이다. 내용이 있다. 인쇄술과 석탄의 1차 산업시대, 전기와 석유의 2차 산업시대, 이제 3차 시대는 무엇이 오겠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羅 成 淑
(응용미술71-75)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낮에는 벽적대단 길거리 집 봉산재, 한밤에 조용히 앉아 옷질한다. 단순 노동의 시간. 간디의 물레질이다. 옷칠로 소반 하나 만들려면 20단계 과정을 넘는다. 초칠하기, 귀잡이, 사포 치기, 골회 바르기, 나전 불이기, 인두 지지기, 중 칠하기, 사포 치기, 흑칠하기, 나전 깎기, 상 칠하기, 광내기 등을 반복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략해도 20단계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얼마나 정이 들겠는가? 대부분의 전통은 기계화가 안 되니 손으로 한다. 그 손길은 다시 인간에게 작용한다. 관계를 순화시키고 깊이를 준다. 우리 집

전통에 찬

에는 공부하러 온 학생들, 천연 옷칠 웰빙으로 만들어 주변에 선물한다고 만들었다가 정작 완성되면 “주기 아까워요. 못 주겠어요.” 그 많은 시간과 정성을 퍼붓고 내니 주기 싫은 것이다. 나는 읽는다. 그들의 마음을... 내가 소유한 추억, 투자한 시간, 흘렸던 공간의 흐름은 내 것이다. 내가 네 이름 불러주어 드디어 꽃이 됐다든 시 한 소절, 나와 의 인연은 내 몸의 한 부분이 됐고 살아 움직인다. 대체와 이진이 불가능하다. 전통이다.

겨우 사는 인생 길어봤자 1백년, All we are is a dust in the wind! 무엇이 남겠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체에 유익하고 앞으로 경쟁력으로 남을 것은 전통뿐이다. 내 손길 간 정은 더욱더 깊게 파고든다. 오늘도 옷칠하고 있는데 ‘빠~이격’ 때문 소리가 들린다. 북이 들어오는구나. 여러분도 북 받으세요!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李 在 忠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B112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韓知沅



본회 林光洙회장은 장학생들에게 “모교가 세계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장학금을 수여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장학생들이 오늘을 계기로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적 인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축하했다.

“오늘 장학금이 내일의 후배양성으로 이어지길”

올해 본회·각 단과대동창회서 총 25억9천여 만원 수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2년 2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모교 재학생 총 3백2명에게 8억7천2백26만9천원을 전달했다.

또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모교 재학생 1백96명에게 4억9천4백82만8천원을 수여함으로써 2012년 2학기 장학금은 총 4백98명에게 13억6천7백9만7천원이 지급됐다.

본회와 각 단과대학(원)동창회는 지난 1학기 장학금으로 4백51명에게 12억2천5백88만5천원을 전달한 것을 포함해 올해 총 9백49명에게 25억9천2백98만2천원을 수여했다.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4~5면 참조>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나가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때 학생들의 분분한 학업 정진에 있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이라고 강조한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말을 인용해 “국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중요함에 따라 총동창회는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한 장학발당을 완공함으로써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물론 교수님들의 연구 지원 등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1세기는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길러 내느냐는 향후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모교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후배 장학생 여러분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모교 재학생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의식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모교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은 여러분이야말로 최고의 효자·효



본회 孫一槓상임부회장 장학금 전달



(재)관악회 孔大植상임이사 장학금 전달



모교 李在影학생처장 장학금 전달



郭永驍특지장학금 수여



鄭八道·李慈倬특지장학금 수여



金讚淑·吳東英특지장학금 수여



趙弼濟특지장학금 수여



金秉順·李志鎬특지장학금 수여



金正澈·金正湜특지장학금 수여



保大院특지장학금 수여



劉鐘海특지장학금 수여

녀로서 장학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장학생에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무한한 자긍심”이라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이 행사를 계기로 남을 배려하고 진정으로 겸손해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교 학생다운 마음가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은 장학금을 받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오늘 받은 장학금의 배에서 만 배까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학생을 대표해 金소담(법학08입)양은 “지난해 법인화에 이어 올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설립 논의 등 모교를 둘러싼 변혁의 물결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배님들의 도움은 저희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장학금에 담긴 뜻이 바로 이러한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뒤를 이으려는 뜻으로 알고 사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저희 역시 후배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축하에서는 明晟旻(성악07-11)·李明鉉(성악07-11)동문이 듀엣으로 ‘You Raise Me Up’을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槓상임부회장, 金貞植·劉鐘海·金讚淑·郭永驍·洪性大·卞柱仙·朴浩田·金鍾燮·鄭忠始·鄭八道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孔大植상임이사, 趙弼濟·權永吳·安聖哲·金秉順이사들 비롯해 모교 吳然天총장, 南益鉉기획처장, 李在影학생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보대원동창회 金旻永회장, 신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 목천문화재단 金正湜이사장, 황산서원 李興鍾원장, 인도네시아지부 鄭武雄감사, 가천길병원 李明哲원장, 남성정밀 朴室相회장, 운촌문화사상연구회 朴南植회장, 朴浩田·金英姬특지장학회 金英姬여사,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회 秋景玉여사, 鄭八道·李慈倬특지장학회 李慈倬여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金綏雄고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香>

2012년 2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학금
洪性大	洪性大(수학57 - 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權志衍(재료공학3)	3, 500, 000
		金正桓(정치외교4)	3, 500, 000
		朴民革(인문1)	3, 500, 000
		朴潤雅(법학4)	3, 500, 000
		裴孝은(국어국문博)	3, 500, 000
		承孝眞(화학생물공학1)	3, 500, 000
		李成仁(언어2)	3, 500, 000
		全孝彬(정치외교2)	3, 500, 000
		丁蕙仁(식품동물생명4)	3, 500, 000
亞南	金柱津(법학54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회장	金賢錫(재료공학4)	1, 722, 500
		宋永賢(식품영양1)	3, 221, 000
		王奎鎬(법학4)	2, 375, 000
		李斗元(전기정보공학4)	708, 000
		조한욱(사회과학1)	2, 681, 000
		崔鍾允(서양사4)	2, 681, 000
		許眞佑(지구환경과학4)	1, 710, 500
李吉女	李吉女(의학51 - 57) 가천대 총장	金昭潤(조경지역시스템2)	3, 021, 000
		崔유진(농경제사회3)	2, 481, 000
金讃淑 ·吳東英	吳東英(조선항공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讃淑(치의학56 - 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羅玟俊(치의학碩)	3, 000, 000
		朴成煥(치의학碩)	3, 000, 000
		李그리미(치의학碩)	3, 000, 000
		李有善(치의학碩)	3, 000, 000
楊銀淑	故 楊銀淑(간호51 - 54) 前대한간협 재정위원장	洪혜민(간호4)	3, 021, 000
鄭八道 ·李慈倬	鄭八道(AIP 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부인 李慈倬여사	姜度源(인문1)	2, 481, 000
		姜玟池(경제2)	2, 481, 000
		具潤省(화학생물공학1)	3, 045, 000
		權赫昌(공학1)	3, 045, 000
		朴智允(경영4)	2, 481, 000
		裴아람(인문1)	2, 481, 000
		禹榮勳(수예1)	3, 119, 000
		張기환(기계항공공학4)	3, 045, 000
		黃泰은(기계항공공학1)	3, 045, 000
李道卿	故 李道卿(농학56 - 63) 前부평문화재단 이사장	金美廷(식품생산과학1)	3, 021, 000
		尹瑞浩(전기정보공학1)	3, 045, 000
李鍾基	李鍾基(경영69 - 73) 상영무역 회장	李民詠(국악碩)	2, 500, 000
鄭哲圭	鄭哲圭(화학공학48 - 52) 신앙문화재단 이사장	高台宇(건축碩)	2, 500, 000
		李鎬工(건축碩)	2, 500, 000
		河제욱(전기컴퓨터공학碩)	2, 500, 000
化學科	화학과동창회	延圭眞(화학4)	3, 021, 000
金秉順 ·李志鎬	金秉順(AMP 4기) 한국구아노 이사 장남 李志鎬(의학77 - 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강소현(의학2)	1, 000, 000
		金仁熙(의학1)	1, 000, 000
		金志泳(법학4)	1, 000, 000
		李수영(법학4)	1, 000, 000
鄭大永 ·閔婉基	故 鄭大永(경제51 - 55) 前한주통상 고문 부인 閔婉基여사	裴교운(정책학博)	3, 156, 000
林光	林光洙(7기공학48 - 52) 임광토건 명예회장	高東柱(바이오시스템3)	2, 500, 000
		權昭瑩(영어교육3)	2, 000, 000
		金奎男(수리학3)	2, 500, 000
		金珉廷(윤리교육2)	2, 000, 000
		金容濤(작곡2)	2, 000, 000
		金元彬(사회과학1)	2, 000, 000
		金潤辰(사회과학1)	2, 000, 000
		金在炫(경영3)	2, 000, 000
		金한솔(국악4)	2, 000, 000
		盧美惠(소비자아동4)	2, 000, 000
		盧玄周(사회과학1)	2, 000, 000
		柳秀鉉(식품생산과학4)	2, 500, 000
		朴秀範(농경제사회2)	2, 000, 000
		차슬아(건설환경공학4)	2, 500, 000
		朴鍾權(공학1)	2, 500, 000
		裴之賢(식품영양2)	2, 500, 000
		申弋智(사회4)	2, 000, 000
		愼玟藝(불어불문4)	2, 000, 000
		延濟玪(기계항공공학4)	2, 500, 000
		吳희정(식품영양4)	2, 500, 000
		禹永鎬(국어국문2)	2, 000, 000
		尹惠貞(경제3)	2, 000, 000
		李先炯(경제4)	2, 000, 000
		李중희(사회과학1)	2, 000, 000
		정오령(의류2)	2, 000, 000
		정유진(화학4)	2, 500, 000
		崔동혁(기계항공공학2)	2, 500, 000
		崔兌煥(건축1)	2, 500, 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吳仁錫	吳仁錫(행정58 - 62) 필립인베스트먼트 회장	李秉贊(경제碩)	3, 156, 000
安聖哲 ·孫潤淑	安聖哲(행정58 - 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孫潤淑여사	金承恩(국악2)	3, 976, 000
鄭忠始	鄭忠始(화학공학72 - 76) 태경산업 사장	金旼眞(치의학碩)	3, 000, 000
郭永勳	郭永勳(토목공학56 - 60)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金旻宣(건설환경공학3)	3, 045, 000
		金容輝(화학생물공학1)	3, 045, 000
		金忠鉉(건설환경공학3)	3, 045, 000
		宋鎭鏞(기계항공공학1)	3, 045, 000
		申한결(건설환경공학2)	3, 045, 000
		吳昌奐(철학4)	2, 481, 000
		吳炫錫(지구환경시스템4)	3, 045, 000
		尹智慧(통계3)	3, 021, 000
		정민환(화학생물공학1)	3, 045, 000
		정인균(기계항공공학3)	3, 045, 000
		洪인선(건설환경공학1)	3, 045, 000
牧村 5父子	故 金道昶(법학43 - 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金裕旼(자유전공1)	3, 021, 000
張學淳	張學淳(토목공학46 - 50) 삼양ENR 회장	朴起亨(생명과학1)	3, 021, 000
		李진솔(간호4)	3, 021, 000
李元圭 기금	李元圭(농생물학58 - 63)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변호사	전승현(기계항공공학4)	3, 045, 000
		白承順(수리과학4)	1, 245, 000
郭東憲	郭東憲(법학61 - 65) 변호사	朴東冽(산림과학4)	3, 021, 000
李相範 ·高旼錫	李相範(행정53 - 57) 변호사 부인 高旼錫여사	黃圭祥(경영2)	2, 481, 000
保大院	보건대학원동창회	金恩敬(보건학碩)	2, 000, 000
金貞姬	金貞姬(약학57 - 61) 시인	차윤지(약학2)	4, 551, 000
禹仁性	禹仁性(기계공학58 - 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李지혜(법학4)	2, 481, 000
陽泉	故 金潤澤(경대원68 - 70) 양천장학회 이사장	孫榮爽(지구환경과학碩)	2, 000, 000
姜信浩	姜信浩(의학46 - 52) 동아제약 회장	金善晳(의류3)	3, 021, 000
		정다은(인문2)	2, 481, 000
吳應玆 ·秋景玉	故 吳應玆(섬유공학67 - 71) 前반월나염시범단지 대표 부인 秋景玉여사	金成珉(재료공학4)	3, 045, 000
崔喜藏	崔喜藏(섬유공학58 - 64) 대성사 대표	朴柱炫(성악3)	3, 000, 000
鄭在鳳	鄭在鳳(사회사업60 - 64) 한섬 사장	金延珍(사회복지碩)	3, 000, 000
		李愼雅(사회복지3)	3, 000, 000
그린	농대 그린장학회	정수정(식품생산과학4)	1, 000, 000
松山	金炯珠(토목공학46 - 50) 삼안전취 회장	차재현(건설환경공학4)	3, 045, 000
		李정식(건설환경공학2)	3, 045, 000
金相廈	金相廈(정치45 - 49) 삼양차 회장	임세희(산림과학3)	3, 021, 000
		조재형(음악碩)	5, 106, 000
金鍾燮	金鍾燮(사회사업66 - 70) 스펙코·삼익악기 회장	조현명(불어불문4)	2, 481, 000
		崔요섭(조선해양공학2)	3, 045, 000
		具滋潤(기계항공공학3)	3, 045, 000
		金旻模(체육교육3)	3, 021, 000
		金民洙(화학생물공학3)	3, 045, 000
		金相賢(체육교육3)	3, 021, 000
		金應辰(정치외교3)	2, 481, 000
		金奎奎(조경지역시스템4)	3, 021, 000
		金兌禹(체육교육4)	3, 021, 000
		金煥勳(불어불문3)	2, 481, 000
		都榮勳(체육교육4)	3, 021, 000
		朴相勳(체육교육4)	3, 021, 000
		朴雄基(조경지역시스템3)	3, 021, 000
		裴得默(체육교육3)	3, 021, 000
		徐玟旭(체육교육3)	3, 021, 000
		申浩鎭(체육교육3)	3, 021, 000
		安亨振(건축3)	3, 045, 000
		禹梓顯(체육교육3)	3, 021, 000
		李奎爽(바이오시스템4)	3, 021, 000
		李旻祐(물리천문3)	3, 021, 000
趙炳祐	趙炳祐(섬유공학59 - 64) 유풍 회장	張현욱(조소3)	3, 710, 000
		韓재석(조소3)	3, 710, 000
李在源	李在源(상학55 - 59) 원앤씨 대표	黃일주(중어중문3)	2, 481, 000
朴室相	朴室相(AIC 9기) 남성정밀 회장	白知烈(법학4)	2, 481, 000
李金器	李金器(약학55 - 59) 일동후디스 회장	盧리브가(약학4)	3, 710, 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愼昌宰	愼昌宰(의학72 - 78) 교보생명보험 회장	姜敏禹(의학2)	2, 500, 000
		姜 滢(의학碩)	2, 500, 000
		辛昭賢(의학2)	2, 500, 000
		李선형(의학1)	2, 500, 000
		李정오(의학1)	2, 500, 000
		李현중(의학4)	2, 500, 000
申明珪 ·朴冠鎬	故 朴冠鎬(화학교육47 - 51) 前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申明珪(생물교육48 - 54) 관악회 이사	權容姬(생물교육4)	3, 021, 000
		金셋별(간호3)	3, 021, 000
		宋承娟(경제3)	2, 481, 000
		梁芝丞(생물교육3)	3, 021, 000
		崔예진(경영1)	2, 481, 000
		韓수지(불어불문3)	2, 481, 000
		韓지원(화학교육3)	3, 021, 000
金斗姬	金斗姬(물리52입) 前숙명여대 교수	姜玟姬(건설환경공학2)	3, 045, 000
		金在賢(건설환경공학2)	3, 045, 000
金正澈 ·金正湜	故 金正澈(건축52 - 56) 前정림건축 명예회장 동생 金正湜(건축54 - 58) 정림건축 회장	郭先榮(건축3)	2, 200, 000
		朴正賢(건축4)	2, 200, 000
南正鉉	南正鉉(건축57 - 61) 대우테크 고문	金榮賢(건축2)	2, 200, 000
		辛炯燾(건축1)	2, 200, 000
李雲柱	李雲柱(의학81 - 87) 린 클리닉 원장 부인 吳知恩(인류83 - 87) 오시카쇼인여대 교수	尹在炫(의학1)	5, 115, 000
壽崙	權永奭(약학55 - 59) 덕흥상사 회장	裴成振(약학博)	4, 758, 000
		李雄燮(화학博)	3, 861, 000
오공 본드	金昌植(전기공학53 - 57) 오공 회장	邊富渡(물리천문3)	3, 021, 000
		李 초 록(물리천문2)	3, 021, 000
元日	鄭啓泳(상학61 - 66) 원일전선판매 회장	金석주(미학碩)	1, 578, 000
		金태현(건설환경공학博)	3, 887, 000
		金학준(사회碩)	3, 325, 000
		尹영욱(조소碩)	4, 758, 000
		李호석(전기컴퓨터공학碩)	3, 887, 000
金貞植	金貞植(전자공학48 - 56) 대덕전자 회장	權容元(전기컴퓨터공학碩)	3, 887, 000
		金敬樹(전기컴퓨터공학碩)	3, 887, 000
		金旭源(전기컴퓨터공학博)	3, 887, 000
		金允洙(전기정보공학4)	1, 695, 000
		金진성(전기정보공학4)	3, 045, 000
		宋龍玆(전기정보공학4)	3, 045, 000
徐廷和	徐廷和(법학51 - 55) 새누리당 삼입고문	康永埈(행정학碩)	3, 156, 000
趙弼濟	趙弼濟(조선항공46 - 50) 세양주택 회장	金勝爕(농경제사회3)	2, 481, 000
曹基浩 ·李英子	曹基浩(화학교육54 - 58) 기호물산 회장 부인 李英子(생물교육56 - 60) 여사	金守暻(생물교육3)	3, 100, 000
		金正柱(생물교육2)	3, 100, 000
		朴相美(화학교육3)	3, 100, 000
		白 雪(화학교육2)	3, 100, 000
		崔승규(물리교육2)	3, 100, 000
柳重熙	柳重熙(기계공학53 - 57) 남성산업 회장	吳光錫(기계항공공학碩)	2, 000, 000
具平會	具平會(정치47 - 51) E1 명예회장	姜聖恩(중어중문3)	2, 481, 000
		南宮惠輪(의예2)	3, 119, 000
		南源詰(법대원碩)	5, 000, 000
		昔智元(환경보건碩)	3, 861, 000
		조연영(보건학博)	3, 861, 000
		조철희(기계항공공학碩)	3, 887, 000
李禎相	李禎相(상학59 - 65) 보생 회장	金枝炫(디자인3)	3, 710, 000
李禮植	李禮植(약학46 - 49) 前극동제약 명예회장	정유진(약학2)	4, 551, 000
李埈鎬	李埈鎬(경제56 - 60) 대림산업 명예회장	郭南輪(식품영양2)	3, 021, 000
		金秀彥(응용생물화학3)	3, 021, 000
		金修廷(건축1)	3, 045, 000
		金慧允(건설환경공학3)	3, 045, 000
		吳東一(조선해양공학2)	3, 045, 000
		尹누리(지구과학교육4)	3, 021, 000
		李健熙(전기정보공학4)	3, 045, 000
		李侑燮(법학4)	2, 175, 000
주이영(의예1)	3, 119, 000		
金文鉉	金文鉉(상학58 - 64) 대일씨앤이씨 회장	文承基(법학4)	1, 000, 000
		沈秉玟(법학4)	1, 000, 000
李秀範	李秀範(행정56 - 60) 백림조세연구원 원장	金世泳(성악1)	3, 500, 000
		채주원(성악4)	3, 500, 000
李淳錫	李淳錫(약학61 - 65) 프라이텍인터내셔널 회장	金知延(약학2)	4, 551, 000
德門	馬國哲(공업교육68 - 72) 한국열연 사장	朴宰賢(디지털정보융합碩)	3, 000, 000
朴南植	朴南植(SGS 27I) 윤촌문화사상연구회 회장	尹載允(농경제사회2)	2, 481, 000
金鍾瑞	金鍾瑞(경제58 - 63) 세보MEC 회장	安修允(불어교육2)	2, 481, 000

(4면에 이어)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張重桓	張重桓(의학69-76) 장중환산부인과의원 원장	조두연(법학4)	2,481,000
安 勳	安 勳(수의학53-57) 양계장 경영	임국태(지리학2)	2,720,000
朴浩田 ·金英姬	朴浩田(경영62-66) 삼덕 회장 부인 金英姬(작곡62-66) 여사	權賢修(간호3)	3,021,000
		金泳赫(바이오시스템4)	3,021,000
		金滌熙(체육교육4)	3,021,000
		金熙元(전기정보공학4)	1,015,000
		차수은(체육교육4)	3,021,000
		朴泳俊(건축4)	3,045,000
		朴泳泰(기악4)	3,976,000
		尹泰林(국악4)	3,976,000
		임문형(작곡4)	3,976,000
		임형준(경영4)	2,481,000
姜寅求	姜寅求(수의학59-64) 대영EEC 회장	金喜淑(보건학博)	3,000,000
		宋주하(수의학碩)	2,000,000
李憲祖	李憲祖(철학52-57) 前LG인화원 회장	李保瑩(외교4)	2,481,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卞住仙	卞住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卞允可(음악博)	2,500,000
孫京植	孫京植(법학57-61) CJ그룹 회장	정현주(수의학3)	4,716,000
金炳贊	金炳贊(의학53-60) 제주한라대학 이사장	金玟赫(과학교육1)	3,021,000
金東吉	金東吉(화학교육57-61) 경인양행 회장	徐敏錫(화학교육2)	3,021,000
李昌遠	李昌遠(법학55-60) 한국단지공업 사장	車용환(수의학1)	1,500,000
劉鍾海	劉鍾海(법학50-54) 연세대 명예교수	金潤佑(법학4)	2,000,000
斗山	朴容晟(경제59-65) 대한체육회 회장 朴容昞(의학62-68) 연강재단 이사장 朴容晩(경영73-78) 두산그룹 회장	金鏡詰(의대원碩)	5,000,000
		金재식(의대원碩)	5,000,000
		李正훈(경영3)	2,000,000
		崔裁榮(의류4)	2,000,000
洪禮杓	洪禮杓(치의학65-71) 홍예표치과의원 원장	權倫寬(치의학碩)	3,000,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金洛榮	金日煥(천문기상64-72) 대화 대표	金廣來(컴퓨터공학1)	3,045,000
嚴秉潤	嚴秉潤(외교60-64) 유라코퍼레이션 회장	朴允珠(외교4)	2,481,000
		李承珉(정치외교2)	2,481,000
藥大	약대동창회	姜昭恩(약학2)	1,000,000
		金珠妍(약학2)	1,000,000
		金志恩(약학2)	1,000,000
		李承恩(약학4)	1,000,000
		崔아희(약학2)	1,000,000
朴鍾日	朴鍾日(조선항공공학47-51) 서원산업 회장	정하용(식물생산과학3)	2,400,000
劉常夫	劉常夫(토목공학60-64) 포스코 고문	車유진(경제3)	2,481,000
李鍾大	李鍾大(천문기상69졸) 대륭ENG 대표	權흥준(전기컴퓨터공학碩)	3,887,000

※ 2012년 8월말 현재 특지 및 기금장학회는 총 1백33개이며, 이번 학기에는 81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함.

본회 일반장학생 명단 (괄호안 전공·학년)

▲인문대 盧旻淨(종교학 석사과정)·조은영(영어영문학3)·한상은(독어독문학3)·홍성은(철학3) ▲사회대 郭美成(정치학4)·金鉉城(심리학4)·金賢鎭(지리학2)·宋洙赫(사회과학계열1)·이진호(경제학 박사과정)·정승훈(경제학 석사과정)·정진원(심리학4) ▲자연대 金元智(생명과학3)·金正音(통계학4)·金正賢(지구환경과학 석사과정)·裴一鶴(화학 석사과정)·정지호(화학4) ▲간호대 金裕利(간호학3)·金志煥(간호학2)·차의진(간호학4) ▲경영대 金善雅(경영학4)·최성만(경영학3) ▲공대 金泰佑(기계항공공학3)·李起樹(기계항공공학4)·李英在(기계항공공학4)·임희창(컴퓨터공학2)·정진서(원자핵공학2)·조재훈(에너지자원공학3)·최영훈(전기공학2)·최준석(재료공학2) ▲농생대 權升佑(응용생물화학2)·朴龍建(농경제사회학3)·孫圭台(식물생산과학4)·柳浩燦(산림과학2)·조은애(농경제사회학4)·진성실(농경제사회학4)·진한샘(농경제사회학2)·홍유선(바이오시스템소재학2) ▲미대 文慧眞(디자인학3)·柳熙苑(조소4) ▲법대 金소담(법학4)·金兌喜(법학 석사과정)·吳鉦旼(법대원2) ▲사대 金榮眞(독어교육4)·金讚美(사회교육 석사과정)·李敍盈(지리교육3)·홍예리(체육교육4) ▲

생활대 金 은(식품영양학4)·申多惠(소비자아동학3)·장애림(의류학3) ▲수의대 楊知永(수이학4)·柳보경(수의학1) ▲약대 徐보경(약학기본과정2) ▲음대 金聖信(작곡3)·金藝珍(작곡3)·이진현(기악4) ▲의대 金信厚(의학2)·朴喜文(의학3)·李東昱(의학4)·최남규(의학2) ▲자유전공 孔志源(자유전공학2)·文勝溶(자유전공학2)

각 단과대동창회 장학생 1백96명에 4억9천4백82만8천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洪京子)=13명 : 9백60만원 ▲농생대동창회(회장 鄭潤煥)=48명 : 1억6백만원 ▲법대동창회(회장 辛永茂)=27명 : 9천4백24만3천원 ▲사대동창회(회장 卞柱仙)=16명 : 4천2백65만원 ▲상대동창회(회장 成耆鶴)=60명 : 1억4천8백86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角模)=3명 : 1천만원 ▲약대동창회(회장 千文字)=5명 : 5백만원 ▲의대동창회(회장 朴容昞)=8명 : 4천만원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金秉燦)=4명 : 1천2백만원 ▲대학원동창회(회장 崔鍾庫)=2명 : 8백만원 ▲보대원동창회(회장 金旻永)=2명 : 5백만원 ▲한대원동창회(회장 李萬儀)=4명 : 4백만원 ▲SGS동창회(회장 曹白一)=3명 : 6백만원 ▲SPARC동창회(회장 鄭亨伯)=1명 : 3백47만5천원

육3년)군 등 6명에게 1천5백98만2천원, 범은장학재단(이사장 張忠植)에서 이한내(불어교육4년)군 등 10명에게 2천6백66만9천원을 전달했다. 천재교육 崔容準(수학교육61-65)회장이 모교 학술장학기금으로 쾌척한 20억원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천재교육 장학금은 문찬주(교육3년)양 등 20명에게 수여됐다.

사대동창회

청관·범은·천재 장학금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8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범대학 교수회의실에서 2012학년도 제2학기 청관, 범은 및 천재 교육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관장학회에서 임인우(교



법대동창회

장학금 9천4백여만원 수여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辛永茂)는 지난 8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1백주년 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2012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성준환(법대원3년), 이지영(법대원2년), 채무성(법대원1년)학생에게 6백75만원씩, 고은영(법대원3년), 성 준(법대원3년), 오형석(법대원3년), 윤 정(법대원3년), 이상호(법대원3년), 김충녕(법대원2년), 김현지(법대원2년), 나스란(법대원2년), 박진덕(법대원2년), 임아영(법대원2년), 김예지(법대원1년), 나형길(법대원1년), 박보희(법대원1년), 박수빈(법대원1년), 박영우(법대원1년)학생에게 3백37만5천원씩 총 7천87만5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법학부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김재홍(법학4년)학생 등 4명에게 총 9백92만4천원을 지급했으며 법학부 연고장학생으로 선발된 정재은(법학4년)학생 등 5명에게 총 1천3백44만4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모교 법대 丁相朝(법학78-82)학장, 법대장 학재단 李秀榮(법학56-60)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수의대동창회

장학금 1천여만원 지급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角模)는 지난 8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4층 교수회의실에서 2012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의대동창회

해외연수 지원금·장학금 전달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昞)는 지난 8월 31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1층 사랑방에서 2012년도 하반기 해외연수비 지원 및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교 병원 소아정신과 金在源(의학91-97)교수, 보라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沈成根(의학91-97)교수,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金泰帆(의학91-97)교수, 서울백병원 신경과 朴景一(의학92-98)교수, 보라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盧銀妍(의학93-99)교수,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李相林(의학93-99)교수에게 3천달러씩 총 1만8천달러를 전달했다. 또 김윤직(의대원4년), 전중원(의대원3년), 이주희(의대원1년), 박정태(의대4년), 이세연(의대3년), 오지선(의대2년), 홍민석(의대2년), 최예지(의대1년)학생에게 5백만원씩 총 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朴容昞(의학62-68)회장, 金鍾和(의학63-69)총무부회장, 朴商弘(의학64-70)재단 부회장, 모교 의대 姜大熙(의학81-87)학장, 朴峻東(의학82-88)대외협력실장, 崔敏鎬(의학83-89)학생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안아람(수의학3년)·김다현(수의학2년)양, 정대성(수의학2년)군에게 총 1천만원을, 姜寅求동문 특지장학금으로 송주하(대학원1년)양에게 2백만원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 李角模(수의학64-69)회장, 대영EEC 姜寅求(수의학59-64 본회 부회장)회장, 모교 수의대 柳判童(수의학75-79)학장 등이 참석했다.

동양사학과동문회

사학인 포럼 열어

동양사학과동문회(회장 趙淳容)는 지난 9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인문대 8동 연강홀에서 모교 국제대학원 趙英男(동양사학85-89)교수를 초청해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중국 공산당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사학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趙淳容(동양사학71-78 前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載)

86세의 나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노년에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나이에 맞지 않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



李元淳

을 주는 것이 나만의 건강법이다. 모교 교수 시절 매일 2시간씩 학내 체육관에서 운동하며 체력을 증진한 것도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모교에서 강의한 것을 비롯해 국사편찬위원장, 한국교회사연구회 고문 등의 다

● 매일 20분 꾸준한 걷기가 비결

에 매일 20분 안팎으로 걷기 운동을 통해 근력과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며 정신적 안정

양한 사회활동을 한 것도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라고 본다. (역사교육45-49)前국사편찬위원장



성악가로서 노래 연습을 하 루도 빠뜨리지 않고 50여 년째 계속하고 있다. 노래는 정신을 맑게 해 주고 몸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무더위가 특히 기승을 부린 올여름에는 바깥 활동을 줄이는 대신 규칙적인 노래 연습에 더 매진함으로써 심신의



安亨一

기구들을 잘 이용한 운동법은 발성에 필요한 횡격막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면서 근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좋은 방법이다.

스포츠 중계를 자주 보며 활력을 전달받는다. 지난 런던올림픽 기간은 더욱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늘 명량하고 활기차게

● 매일 노래 연습으로 건강 지켜

건강을 유지했다. 평소 걷기 운동에 한 시간 정도를 할애하며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등도 자주 실시한다. 또 여러 가지 운동

지내려 노력한다. 잘 웃고 걷기 운동을 즐기며 노래로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내 건강의 비결이다. (성악47-50)前국립오페라단 단장



장학금 1억4천여만원 전달

상대동창회

상대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8월 31일 모교 관악캠퍼

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201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동창회는 이번 학기부터 장학생 수를 예전보다 20명 증원해 총 60

장학금 수여·지역세미나 열어

치대·치대원동창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秉燦)는 지난 8월 21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 2층 교수회의실에서 金秉燦(치의학69-75)회장, 모교 치의학대학원 崔珣哲(치의학73-79)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 장학금으로 오현준(치의학4년), 박지훈(치의학3

년), 김가람(치의학2년), 이동섭(치의학1년)학생에게 3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총 27명의 장학생에게 연송 장학금, ㈜오스템 장학금, 지씨코리아 장학금, 강포 장학금, 동문사랑 특정장학금, 변금옥 특정장학금, 새전년 특정장학금, 서영규 특정장학금, 벨몬트 특정장학금, 김광남 특정장학금, 장완식 장학금, 20회 장학금, 96회 장학금, 초민 장학금, 정대영 장학금, 교육연구재단 장학금이 전달됐다.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교 김재은(경제4년)군 등 경제학부 30명과 윤선호(경영3년)군 등 경영학과 30명에게 장학금 1억4천8백86만원을 지급했으며 학술연구비로 모교 경영대 및 경제학부에 각각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成耆鶴회장, 한국물류협회 安台鎬(경제45-53) 명예회장, 금토상사 韓英國(경제50-54)회장, 오라관광 金正銀(경제52-56)前대표, 조흥증권 李鍾衍(경제52-56)前회장 등 70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엠스테이트 컨벤션에서 金秉燦회장, 崔珣哲원장, 朴健培(치의학70-76)부회장 등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군포·의왕지역 동문세미나를 개최했다.

崔珣哲원장은 모교 현황 및 진행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오는 10월 6일 열릴 홈커밍데이 행사에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그동안 사용해 왔던 지역 동문회장의 명칭을 동창회장으로 변경하고 鄭祥喆(치의학82-88 명문치과의원 원장)동문에게 지역 동창회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멘토-멘티 결연식서 비전 제시

치대 여자동문회

치과대학 여자동문회(회장 崔明鎭)는 지난 8월 25일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파트너스라운지에서 치대원 여학생들과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학평론가이자 인문학자인 고미숙 씨가 '삶의 비전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崔種姬(치의학87-93)과장, 웃는내일치과 李靜和(치의학85-91)원장과 모교 치대원 崔瑛壬

(치의학85-91)교수 등 선배 동문들이 강연을 펼쳤다.

이날 高聖姬(치의학73-79 고치과의원 원장)·金殷淑(치의학73-79 김은숙치과의원 원장)·許允姬(치의학74-80 보성치과의원 원장)·沈庚淑(치의학79-85 오렌지치과 원장)동문이 멘토로 참석해 치대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載)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케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픈라자 7F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ASP동창회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官洙)는 최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金東洙(황대원 80-83)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2012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동승클럽

남한산성 등반모임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白勝基)은 지난 8월 4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정기 등반모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은 남한산성을 등반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날 羅永憲(외교65-69 월간 참여사회 운영위원장)동문이 李世瀾(언어65-73)동문으로부터 아호(文曲)를 선물 받았다. <載>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다녀와

AMPFRI동창회

식품·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宋明儀)는 지난 7월 26일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시설 ‘가브리엘의 집’에서 하계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 宋明儀(AMPFRI 24기 고래루드 대표)회장, 黃檀淵(AMPFRI 17기 예성 대표)부회장 등 1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李峰萬(AMPFRI 21기 창조식품 대표)부회장이 지명한 김치찌개 2천인분 등의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시설 아동들과 만나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

‘가브리엘의 집’은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중증·복합장애로 다른 시설 및 기관에서 거부당한 장애아동 30여 명을 위한 그룹홈을 운영하며 원만한 인격적 성장과 자립을 돕는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宋明儀회장은 “가브리엘의 집 원생들이 장애 유무를 떠나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동창회는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전했다.

1백40명 모여 친선골프 개최

GLP동창회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李鍾大)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골드CC에서 1백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를 위해 李鍾大(GLP 16기 한백CNT 대표)회장이 3백만원 및 골프클럽 이용권, 梁正武(GLP 15기 아이랜드필드 회장)골프회장이 골프클럽, 모교 국제대학원 白珍鉉(법학76-80)원장이 골프장갑을 협찬했다. 또 20여 명의 동문과 4기 동기회 등 13

개 기수에서 푸짐한 금품을 출연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 : 우승 13기 동기회, 준우승 23기 동기회, 3위 14기 동기회 ▲개인 : 우승 이우영(GLP 24기)동문, 준우승 權成玉(GLP 22기)동문, 3위 오선근(GLP 14기)동문 ▲메달리스트 : 李泰鏞(무역79-83·GLP 23기)동문 ▲롱기스트 : 박진춘(GLP 19기)동문 ▲니어리스트 : 김용학(GLP 16기)동문 ▲다비다상 : 田鎭奎(GLP 16기)동문 ▲다파상 : 이희준(GLP 22기)동문 ▲최다참석상 : 16기 동기회

만평

李元馥



듣기에 따라서는

둘째 아이를 가진 임신부가 정기검진에 유치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야?”
“응.”
“남자야?”
“그런 거 같구나”
“아이 좋아!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게!”
딸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
“아빠!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거 같아.”

父傳子傳

아들이 날마다 학교도 빼먹고 놀러만 다니는 망나니짓을 하자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무섭게 꾸짖

으며 말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네 나이였을 때 뭘 했는지 아니?”
아들이 너무도 태연히 대답했다.
“몰라요.”

그러자 아버지는 흥취하듯 말했다.
“집에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단다.”
그러자 아들이 대꾸했다.
“아! 그 사람 나도 알아요. 아버지 나이였을 때 대통령이었잖아요?”

금지사항

어느 골프장에 내기 골프를 금지하자 손님이 3분의 1로 줄었다.
다시 ‘스코어를 속이는 사람은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이자 손님이 오질 않아 문을 닫을 지경 돼 버렸다. <독자제보 환영>



2012 Korea Top Award
고객행복브랜드 大賞
결혼정보분야 1위

행복출발 The1
결혼, 행복한 1등 출발 - 결혼정보

결혼은 1등으로
행복출발 하세요

결혼정보회사 행복출발
전국무료상담 1588-3883
www.theone.co.kr

15년 성혼의 달인들과
세계최고의 MBA출신들이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前 아나운서 최승현

01 국내최초
전문 특화 결혼정보

02 세계 최고 MBA
(와튼 스쿨) 출신들

03 15년 노하우
성혼의 달인들

04 독보적인 글로벌
검증 시스템

05 완벽한 고객
최우선 서비스

홈커밍데이서 재학생 공연 관람

영문과동창회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柳津)는 지난 9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기숙사동 가운데 및 인문대 8동 대형강의실에서 홈커밍데이 및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柳津(영문78-83 풍산 회장)회장, 포스코동우회 安秉華(영문50-58)회장, 대한언론인회 申禹植(영문53-57)고문, 모교 영어영문학과문과 柳斗善(영문76-80)학과장 등 1백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영문과 재학생들이 기념공연 'Black Comedy'를 선보여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8동 대형강의실에서 모교 李相沃(영문58졸) 명예 교수의 '기승전결-예술의 한 원형인

가', 白樂晴 명예교수의 '위즈워스의 서정시 몇 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후 열린 총회에서 2011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가 진행됐으며 2기 임원진을 선임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柳津회장의 2년 연임을 승인했다.

총회를 마친 후 8동 5·6층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安秉華회장과 申禹植고문의 건배사에 이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역우회

포럼 통해 친목 다져

역도부 출신 동문 모임인 역우회(회장 金漢植)는 최근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 서울병원 모자보건센터 CEO강의실에서 '기업경쟁력과 혁신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성균관대 金鍾傑(수학 70-74)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한 동문은 발표 내용을 각자의 영역에 접목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법대 17회 동기회

강화도 역사탐방

법과대학 17회 동기회(회장 李孝鍾)는 최근 60여 명의 동문 부부가 참여한 가운데 강화도 역사탐방 및 휴전선 안보견학 행사를 했다.

동문은 해병전우회 임원을 맡은 신방 劉和善(행정59-63)회장의 안내를 받아 휴전선 최단거리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하고 부대 측에서 마련한 안보견학 코스를 둘러봤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申夏淳作

<작가약력>

- ▲1983~1991 모교 동양학과 졸업
- ▲1991~1993 모교 대학원 졸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 졸업
- ▲1996 수목화운동이후의 수목화
- ▲2004 신소장품展
- ▲2005 한국화 VISION 2005, 한국미의 발견, 경기아트페어
- ▲2006 대학과 미술교육 60년
- ▲2010 기억이 흐르는 풍경
- ▲現모교 동양학과 교수

피카소미술관, 캔버스에 파슈, 40×40cm, 2008

역대 회장 한자리서 발전 논의

토목공학과동창회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片宗根)는 지난 8월 27일 서울 서초동 한정식 '대원'에서 역대 동창회장 오

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18대 片宗根(토목공학66-70 명지대 교수)회장을 비롯해 9대 丁明植(토목공학50-55 한국산악회 고문)·11대 鄭然世(토목공학53-57 한국선급엔지

니어링 회장)·12대 郭永駟(토목공학56-60 도화엔지니어링 회장)·14대 黃光雄(토목공학59-63 건화엔지니어링 사장)·15대 張丞弼(토목공학61-65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칙 개정 절차와 개정 사항에 대해 회칙 개정 운영위원회 朴英錫위원장이 보고했다. <載>

9·10 월 행사 캘린더

9월 20일(목) 오전 7시30분

• ACAD동창회 국정포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문의 : 02-871-8951)

9월 21일(금) 오후 7시30분

• SPARC동창회 음악회

서울 상암동 팬택 사옥 콘서트홀
(문의 : 02-880-4353)

9월 24일(월) 오후 12시40분

• AIP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광주시 뉴서울CC
(문의 : 02-878-9467)

9월 26일(수) 오후 6시

• 대학원동창회 대학원생의 밤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 02-880-7565)

10월 8일(월)~14일(일)

• 의대동창회 미술전시회

연건캠퍼스 합춘회관
(문의 : 02-740-8183)

10월 13일(토) 오전 9시30분

• 상대동창회 바둑대회

서울 홍익동 한국기원
(문의 : 02-761-2278)

10월 14일(일) 오전 10시

• 약대동창회 홈커밍데이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 02-701-3456)

Go Beyond

World's Best PCB

1965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덕GDS는 국내 유일의 PCB 전 기종을 생산하는 종합 PCB회사입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창조적인 시스템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테크놀로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첨단 기기에서 생활가전, 자동차, 모바일까지 사람을 위한 디지털 세상,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기술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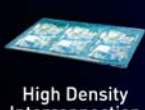
DAEDUCK GDS
PORT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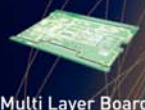
Flexible PCB



Rigid Flexible PCB



High Density Interconnection



Multi Layer Board



Metal Based PCB

DAEDUCK GDS
Global Digital Solution
www.daeduckgds.com



مرحبًا. أنا مسرور بلقائك.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한화, 80억불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 수주

이라크는 새로운 희망을 대한민국은 새로운 내일을 비춥니다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한화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라크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더 많은 중소기업과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화가 먼저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내일을 키우겠습니다



2012 한화건설 경력 사원 공개채용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www.hwenc.co.kr> → 채용정보 → 경력채용)



기술과 경험으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해수담수화·고도수처리 전문기업 - **Haji**

상수용 해수 담수화 설비와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석유 화학 PLANT, 제철 및 전자 산업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초순수생산수처리설비를 기획,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및 시운전까지 TURN-KEY 방식으로 21세기에 요구되는 최상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처리 및 순수 생산 설비
Pretreatment & Demineralizer System
- 이온 교환막분리 순수제조 설비
Membrane Deionization System (MDI®)
- 촉매식 용존산소 제거 설비
Catalytic Oxygen Removal System (CORS)
- 역삼투압설비
Reverse Osmosis System(RO)
- 해수전해 염소주입설비
Seawater Hypo-chlorination System(HYPO)
- 복수탈염설비
Condensate Polishing System(IMR®II)
- 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경상정비
Operation & Maintenance
- 하·폐수 처리설비
Sewage & Wastewater Treatment System

50년 노하우와 세계 정상 기술력이 탄생시킨 최고의 미네랄 알카리수 **A***



국내 최초 수처리 플랜트를 공급한 이래 수처리분야 최고의 기술과 경험으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한국정수공업(주)가 50여년 축적되어온 R&D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좋은 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목표로 양질의 미네랄 알카리수 개발에 성공, 미네랄 알카리수 「A수」를 선보입니다.

US.FDA Reg.No: 12935696256

본 제품은 미국 FDA 안전성 검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한국영업허가: 여주 2009-007호

알카리수는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대리점 상담 및
제품구입 문의

1588-9719
www.eisu.co.kr

세계 최고의 물처리 전문기업 —————
한국정수공업주식회사
Hankook Jungsoo Industries Co., Lt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0
TEL : (02)855-0661~3 (031)491-2175~7
FAX : (031)491-3665

화제의 동문

국제보건의료재단 李壽久총재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충족한 나라)에 가입했다. 또한, 지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OECD 설립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까지 늘릴 계획이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공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공적지원 전담기구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6년에 설립돼 개발도상국 및 북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은 지난 6월 李壽久(치의학66-72)동문을 제3대 신임 총재로 맞이하며 낯가을 달은 듯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李총재를 만나 재단의 업무 및 그의 근황에 대해 들어왔다.

지구촌 의료환경 개선 위해 노력

李총재는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이뤘다. 우리가 어려웠던



보건의료계 이끄는 나눔 리더

질병 없는 세상, 건강한 지구촌 꿈꿔

시절에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갚아야 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계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구촌 의료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李총재는 지난 7월 고려인 1세대가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을 방문하며 해외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귀국 후 재외동포 재단을 방문해 재외동포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재단이 펼치고 있는 사업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지원이다. 그중 개발도상국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체계 강화에서 필수 요소인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과 역량 강화를 위해 故 李鍾郁박사의 이름을 따 명명된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수 년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모교 의대가 미국 미네소타대의 고등교육 원조 프로그램을 받으며 한국전쟁 후의 대학 재건 지원을 받았던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같이 한 국가 및 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중장기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 원조 프로그램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종욱펠로우십’은 올해까지 22개 개발도상국 3백18명의 보건의료 인력이 국내 초청 연수 혹은 현지 교육을 받았다.

이외에도 재단은 모자보건 사업, 북한 주민 지원, 재외동포 사업 등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李총재는 2015년까지 3년간 재단을 이끌게 된다. 그는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에 대해 “이종욱펠로우십 확대를 통해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의료 부분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내의 은퇴한 의료 및 행정 등 전문인력의 봉사활동 인재풀이 활발히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은퇴 동문들이 우리 재단의 인재풀에 등록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인재등록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www.kofih.org)에서 직접 할 수 있다.

펠로우십 확대 및 인재풀 활성화

李총재는 치과대학 재학 당시인 1969년 모교 향토개척단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에 관심을 두게 됐다. 그는 향토개척단으로 활동하며 충남 보령시 바다를 간척하는 등 농촌 발전 및 계몽에 힘을 쏟으며 봉사하는 삶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가치를 느꼈다.

그는 그동안 대한치과협회 제27대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제32대 회장, 남북치의학교류협회 공동대표, 세계한센포럼 조직위원,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큰 공을 세웠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 국내 최초의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인 서울시립장애인지과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장애인 구강 보건 분야의 비영리단체인 스마일재단을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의료 보건 분야를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이끈 李총재는 지난 4월 7일 제40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자격으로 국민훈장 목련상을 수상했다.

끊임없는 봉사정신으로 한국 보건의료를 이끌고 있는 李총재의 아름다운 행보를 통해 재단의 구호이기도 한 ‘질병 없는 세상, 건강한 지구촌’이 되는 그날이 다가오길 기대한다. 〈沅〉

金載旺변호사

지난 2월 국내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판사가 탄생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각장애 1급으로 앞을 전혀 못 보는 상황에서 텍스트 음성변환 등의 방법으로 공부해 전인미답의 자리에 올라선 주인공은 모교 법대 출신의 崔瑩(법학00-06 서울북부지법 판사)동문이었다.

崔동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라지기도 전인 지난 4월, 모교 로스쿨에서 또 다른 화제의 인물이 등장했다. 모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에서 공부한 金載旺(생물97-03·법대원09-12)동문이 시각장애 1급의 난관을 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올해 초 출범한 비영리 공익인권변호사 단체인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의 창립멤버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金동문은 “사회적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 동등한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창립멤버

‘희망법’은 현재 7명의 구성원이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 상담, 공익인권소송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金동문은 장애인 인권, 공익인권단체 지원 등의 영역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국내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 변호사

“사회적 약자 인권신장 위해 노력”

“작년 8월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던 6명이 모여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사무실을 열기로 결의했어요. 지난 2월 개소식을 한 뒤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우리나라에 대한 난민 신청자의 인정 소송, 성 소수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및 형사사건 변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또 장애를 가진 당사자

로서 金동문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법체계에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법이나 제도 등에서 더디게나마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배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은 개인의 손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큼니다. 그렇지만 유엔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개념은 사회적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세계적 추세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질적, 제도적, 심적 장벽을 없

애자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넘어서 제도나 환경 등 모든 기초에서부터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장벽조차 덜 걷힌 상황입니다.”

金동문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라며, ‘희망법’ 역시 그에 기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인권운동을 하는 여러 비영리단체가

그렇듯 저희도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여러 공익기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소송 당사자들에게 최소 실비만 받다 보니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이며 길게는 10년이든 20년이든 한결같이 공익을 위해 지속할 수 있는 ‘희망법’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뜻있는 동문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력 잃었지만 인권감수성 눈 떠

金동문은 대학원에 다니던 2003년 시력을 잃게 되자 진로를 바꿔 2005년부터 4년여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담을 하며 변호사가 될 결심을 굳히고 2009년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각고의 노력 끝에 뜻을 이뤄냈다.

그는 모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과 학업에 모두 관심을 가진, 나무와 꽃이 많은 관악캠퍼스를 무척 좋아했던 생물학도였다고 스스로를 회고했다. 남다른 감수성으로 세상을 보던 육안의 힘은 잃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감수성의 눈을 누구보다도 밝게 뜬 金동문은 후배 동문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달라”며 푸근한 웃음을 지었다. 〈載〉

화제의 동문



일곱 빛깔 NH가 모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듭니다

일곱 빛깔 금융네트워크가 뒹습니다
일곱 빛깔 행복네트워크가 뒹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밝은 세상,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미래,
NH농협금융이 열어 가겠습니다

다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CA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농협선물



롯데면세점 한가위 대축제

[9/1~10/4]

- 구매금액별 선불카드 최대 17만원 증정
- 잠실점, 코엑스점 방문객 선불카드 1만원 증정
- MD 추천 상품 1만원 즉시 할인
- 구매금액별 패밀리 콘서트 티켓 증정
(9/10~재고 소진시까지)

* 자세한 내용은 롯데면세점 홈페이지(kr.lottedfs.com) 참고



국내 최초 모바일 면세점 오픈!

Shopper's Wonderland



Korea • 서울 본점 • 서울 월드컵점 • 서울 코엑스점 • 인천공항점 • 김포공항점
• 부산점 • 김해공항점 • 제주점 • 제주공항점 • 가나면세점 Indonesia • 자카르타공항점
Singapore • 싱가포르공항점 • 대표전화 1688-3000 • 인터넷 면세점 www.lottedfs.com

www.keechani.com

Valuable Future Technology, Making The Best Better **KEECHAN** Information & Telecom



대표이사 홍 석 기

自社만의 독자적인 경험과 가치 구축..

1G(Analog_Wired System), 2G(Digital System), 3G(IMT-2000), 3.5G(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Wi-Fi and NGN 4G(LTE, WiMax) 시스템 뿐만 아니라, G-City건설을 위한 통신과 방송융합下的 u-BcN(Ubiquitous-Broadband Communications Network)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 등 제반 영역에 걸쳐 전문 InfraStructure Service & Service & Managemenet의 최상급 퀄리티 솔루션을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기찬정보통신(주)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209-8 기천빌딩 2F~3F Tel. 02-425-1925 Fax. 02-425-0876

“국내 뇌연구 세계화에 일익 담당할 터”

동문특 찾아서

한국뇌연구원 徐 維 憲원장



대한민국 뇌연구 분야를 선도할 적임자이자 세계적인 뇌연구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최고의 두뇌.

지난 7월 4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이사회를 통해 한국뇌연구원 초대 원장에 임명된 모교 약리학교실 徐維憲(의학67-73)교수를 지칭하는 말이다. 徐원장은 지난 1998년 우리나라가 뇌연구촉진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후 한국뇌연구원 설립 추진기획단장까지 역임하는 등 뇌연구원 설립을 사실상 주도해왔다.

그는 “초대 원장으로서 우선 연구 인력을 최대 2백명까지 확충해 2014년 건물이 완공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徐원장은 그동안 치매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베타펩티드’라는 기존 학설을 제치고 ‘C단 단백질’이 베타펩티드보다 신경세포를 사멸시키는 독성이 10배에서 최대 1백배 이상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뇌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과를 내고 있는 석학이다.

대답 : 蔡 耕 玉(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부장)논설위원

— 우선 ‘한국뇌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998년 뇌연구촉진법이 제정됐는데 당시 제가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7조 1·2항에 ‘앞으로 뇌연구가 1단계 촉진이 되고 나면 국가가 출연하는 독립적인 뇌연구소를 설립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1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후속조치로 설립추진단을 2008년 1월에 만들었으나, 그해 2월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결과적으로 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장을 맡은 것은 추진기획단장도 역임한 만큼 우리나라 뇌연구의 마지막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뇌연구원이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 서울과 대구를 왕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 발전할 수 있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구간 이동으로 불편함이 크시겠습니다. 뇌연구원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출연연구기관이 20개가 넘으면서 비관이 적지 않아 뇌연구원은 독립적인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고자 기획했습니다. 100%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원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천, 대전, 대구·경북 3곳의 지자체가 뇌연구원 유치에 나섰으나 인천과 대전이 경합을 취소하면서 최종적으로 대구·경북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 초대 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뇌연구원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1월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른 시일 안에 연구 인력을 최대 2백명까지 확충하고 그 중 20% 이상을 외국인 연구자로 충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뇌과학종합연구소(BSI)의 경우 현재 6백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험을 미리 시작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뇌연구

경쟁이 촘촘을 다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대구시로부터 건물을 제공받아 이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 산하기관의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는 무슨 일을 할니까.

“뇌연구원의 산하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학생폭력, 인터넷 게임중독, 집단 따돌림 문제 등과 관련한 연구는 물론 상담 교사 교육을 시행합니다. 청소년 문제의 예방도 뇌연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 뇌를 연구해 보면 전두엽 쪽의 이성의 뇌가 감정과 본능의 뇌를 제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유아교육 시절에 많이 발달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 시기에 영어, 수학, 국어 등 지적인 것만 배우고 감정과 본능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 원장님께서서는 인간의 뇌 구조를 3단계로 표현해 이해도를 높여주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독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층은 목뼈가 끝나는 머리의 아래쪽 부분인데요, 숨 쉬는 기능 등을 담당하는 ‘생명의 뇌’입니다. 이 부위를 다치면 뇌사가 되는 것입니다. 2층은 생명 다음에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감정과 본능의 뇌’로 이 부분에서 행복함, 자신감, 포만감 등 정서적·신체적 만족감을 충족하게 됩니다. 3층은 ‘이성의 뇌’인데요, 지식·이성·사고·생각 등을 총괄하는 뇌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게서만 발달된 부분이 바로 3층인 ‘이성의 뇌’입니다. 그래서 3층을 다른 말로 ‘인간의 뇌’, 2층을 ‘동물의 뇌’, 1층을 ‘파충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뱀을 애원 동물로 키울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귀여워 해도 주인을 물어버리기 때문인데 뱀은 2층인 감정의 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 미국과 유럽은 각각 ‘뇌연구 10년 프로

2014년 연구원 완공... 연구인력 2백명 8월부터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 운영

감정이 쉽게 폭발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연구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빨리 교화하면 사회병리현상, 사회 범죄도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실제로 최근 들어 학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뇌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경우 3층 이상의 뇌만 자극할 뿐 행복이나 충만감, 자신감 등을 느끼는 감정과 본능의 뇌를 함께 충족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감정과 본능이 메말라 있는 것이지요. 결국 아이들이 굶주린 감정과 본능을 채우기 위해 폭력으로써 순간적인 쾌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지식 뿐만 아니라 행복감이나 자신감 등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뇌교육입니다.”

젝트’와 ‘유럽 뇌연구 10년 법안제정’ 등을 통해 뇌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년간 매년 1조5천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뇌연구에만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뇌연구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현재 뇌 분야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으며 그 뒤를 중국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특정 분야의 경우 90%까지 올라왔지만, 평균적으로 70~8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뇌 분야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이 그 역할의 중심축이 돼야 할 것입니다.”

· 徐원장은

1973년 모교 의학과를 졸업한 후 신경약리학으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모교 약리학교실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뇌학회 초대 회장을 비롯해 한국뇌연구원 설립 추진기획단장, 한국마음두뇌교육협회장, 한국뇌신경과학회 이사장, 일본 동경대 의과연구소 교수, 독일 하이델 베르그 대학 교수, 미국 코넬 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 뇌과학 올림피아드 위원장, 국가 뇌연구 촉진심의위원회 위원, 국제치매학회(ICAD) 이사, 국제 인간프론티어과학(HFSP)기구 본부 이사 등을 맡아 활동하며 뇌연구에 관련한 국내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 의사협회 선정 한국 우수 의과학자 20인에 뽑혔으며, 제15회 한국과학기술 저술상, 2008년 모교 우수연구자상, 2009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등을 수상했다.

— 교육열풍으로 인해 자녀들의 두뇌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조기교육이 두뇌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요.

“뇌과학적인 면에서 언어의 뇌가 가장 발달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넘기면 이후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를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외국어 공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 시기는 모국어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어의 경우 모국어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초등학교 이전에 배우면 제대로 배우기가 힘듭니다. 단어만 안다고 말이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이 같이 발달해야 표현도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의 뇌가 빠르게 발달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모국어와 외국어를 배우면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반 대접받으려 하면 치매 잘 걸려”

☑ 언어교육도 뇌발달의 패턴에 맞게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심지어 건축물도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건물 천장의 높이와 창의성이 비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소아 마비 백신을 개발한 솔크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소의 천장을 기본적인 건물보다 높게 짓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뇌연구자들과 건축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건물 천장이 높으면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병원건물을 예로 들면 창의성이 필요치 않고 집중력이 필요한 수술실의 경우 천장이 평균 건물높이보다 좀 더 낮게, 반대로 회복실은 높게 만들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장수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고 조립하는 것, 대표적으로 요리를 하는 것 등이 뇌발달에 좋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 같은 단순한 요리 말고 최소한 잡채를 만드는 정도의 머리를 쓰는 요리를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잘 먹고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신경전달물질은 아침에 만들어져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듭니다. 밤이 되면 신경전달물질이 모두 소진이 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신경전달물질은 단백질·탄수화물·지방의 3대 영양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골고루 풍요롭게 먹어야만 합니다. 또 잘 때와 쉼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씹는 행위, 저작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아가 있는 노인보다 그렇지 않은 노인의 치매발생 확률이 40~50% 높습니다. 저작운동을 할 경우 우리 기억의 해마가 활성화돼 기억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5분 이내에 식사를 마친다고 하는데, 한번에 30번씩 씹으며 30분 이상 식사를 하는 것이 뇌건강에 좋습니다. 실제로 연구결과 30분 이상 식사를 하며 저작운동을 할 경우 해마로 가는 혈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취미 및 봉사활동을 통해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양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을 많이 움직이며 더불어

마인드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외부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릴 경우 치매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술, 담배, 비만, 저체중을 피해야 합니다. 고도비만의 경우 치매발생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에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경전달물질이 줄어들어 역시 치매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치매예방과 장수를 위해서는 평균보다 약간 많은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 치매예방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니 이해가 훨씬 잘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으로 원장님께서 인생의 지표로 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원칙과 약속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날 위에 서 있는 완고하고 좁은 원칙은 곤란하겠지요.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야 삶이 윤택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 저희 동문들 중에도 자녀교육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만으로도 제 아이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지요. 서울대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요즘 세상에 부모가 서울대 나왔다는 것만큼 원초적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라’ 강요하지 않았어요. 학원도 따로 안 보냈고 과외를 시켜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제가 직접 같이 공부를 해주고 방학 때는 함께 여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하자면 뇌 기반교육을 시킨 셈인데요, 진로문제에 있어서도 아이의 적성에 맞는 분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줬을 뿐입니다. 다행히 자기 길을 잘 찾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 평소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따로 운동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많이 걸어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긍정과 낙관을 생활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는 것은 두 번, 세 번 도전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일 년에 한두 번 골프를 치는데, 마음을 비우고 즐겁게 하니깐 욕심을 내고 치는 사람보다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 후배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각종 폭력이 난무하고 세상이 갈수록 어떤 숭고한 가치를 찾고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남을 먼저 배려하고, 특히 우리 뇌의 도덕성과 인간성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외부에서는 서울대생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우리 동문들이 더욱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비판은 좋지만 비판한 것은 본인 스스로도 실천해 나가는, 즉 실천이 동반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朴新載기자·정리= 林香默기자)



이처럼 건물도 일률적인 것이 아닌 특성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치매는 21세기형 질환입니다. 앞은 이제 초기에 발견만 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치매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평소 뇌건강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행동 지침으로 즐겁게 많이 해야 할 일곱 가지(7多)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3不)인 ‘뇌 발달 및 치매 예방 10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치매예방을 위한 일곱 가지 계명은 무엇인가요.

“뇌를 항상 움직이게 해서 신경세포가 정보·전달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20~30분이라도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라도 손으로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하기 운동입니다. 읽고 쓰고 말하는 세 가지가 뇌를 강화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뇌의 전체 기능 중 50%가 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만큼 뇌운동과 손은 직결돼

‘7多 3不’ 행동지침으로 치매 예방

운동·휴식·긍정적 사고로 건강유지

— 뇌운동과 손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치매예방에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나머지 네 가지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긍정적·낙관적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긍정적·낙관적 사고를 가지면 감정과 본능의 뇌(2층)에서 이성의 뇌(3층)로 가는 회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뇌 신경세포는 참으로 독특해서 플라스틱처럼 무한히 만들어질 수 있는 반면 한번 소멸되면 다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뇌 강화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처음에는 1차선이었다가 반복훈련과 강화를 통해 8차선 고속도로가 된다고 설명하면 쉽습니다. 신경회로를 부지런히 강화하면 8차선 고속도로가 16차선으로 확장되지만, 반대로 부정적·비관적 사고를 가지면 고속도로가 일시에 폐쇄됩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하고 즐겁게 해야 더 기억도 잘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좌뇌와 우뇌를 함께 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좌뇌는 논리적·분석적·계산적 기능을, 우뇌는 감정적·감각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성은 좌뇌를, 여성은 우뇌를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양쪽 두뇌를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다면 뇌건강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스트레스는 뇌세포 회로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그것을 얼마나 빨리 이완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까짓 거, 별거 아냐”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빨리 날려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www.kps.co.kr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한 한전KPS!

한전KPS에게 전력설비 정비는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혼(魂)을 담은 명품정비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전력설비사업의 초석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력설비 기업을 넘어 100년을 꿈꾸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뛰겠습니다.



나주 신사옥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 설비(수력, 화력, 원자력) 정비 • 송변전설비 정비 • 민간산업설비 정비 •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특화기술서비스 • 신재생에너지

한전KPS주식회사

영림임업주식회사

도어, 몰딩, 벽장재에서 샷시까지 —
**영림과 함께라면
생각이 공간이 됩니다**

영림임업 2012년 신제품 출시



YA-18 스퀘어 YW-19 모던라인 YW-255릴리

영림임업 전속모델 차인표

www.ylf.co.kr
대표전화(본사) 032-813-5500

耳順테니스회

이순테니스회(회장 申東澈)는 회원 모두가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테니스 애호가 동문들의 모임이다. 지난 1987년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매년 3회 이상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태풍 블라벤이 전국을 강타했던 8월 막바지의 어느 날, 초속 30여 미터의 강풍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강한 기력을 자랑하는 全兢烈(토목공학45-48 유신 회장)·姜信玉(법학56-61 강신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韓榮成(천문기상59-63 한국기술사회 회장)·申東澈(화학교육59-63 호마기술 대표)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간직하고 있는 아련한 추억을 하나 둘 꺼내 들었다.

창립 멤버로서 지금까지 모임을 지키고 있는 全兢烈동문은 “1936년 무렵 처음 테니스를 배웠으니 벌써 76년 가까운 세월이

모임의 발전을 주도했다.

馬동문에 이어 2000년부터 2년 동안 제2대 회장을 맡았던 全兢烈동문은 “내가 회장을 맡았던 당시에는 회원 수가 69명까지 늘어나는 등 모임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런데 골프의 대중적 인기가 크게 높아지며 테니스를 즐기던 이들의 여가활동이 골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며 아쉬워했다.

이순테니스회는 매년 세 번의 대회를 열고 있다. 식목일에 가장 가까운 토요일, 현충일, 개천절이 모임의 정기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지난해 4월 9일 대회에는 당시 현직에 있던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참여해 4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는 실력을 과시했다. 이날 대회에 함께 참석한 모교 吳然天총장은 스티븐스 대사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 호암교수회관에서 오찬 행사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테니스로 체력을 다져 온 회원들은 지금도 틈날 때마다 가까운 코트를 찾아 경기를 즐기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全兢烈동문은 “지금도 출

OB합창단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이 되면 노래를 찾아 강남에 위치한 지하 연습실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있다. OB합창단(단장 金善聃) 소속 동문들이 그 주인공이다.

1984년 창단된 OB합창단은 모교 합창단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단체다. 학창 시절 합창생활을 이어온 단원들이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됨의 소리에 대한 감동을 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모여 연습 및 공연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일정하게 정해진 단원 없이 학부 합창단 출신이면 누구나 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만의 특징이다.

현재 金善聃(기계항공97-01)단장을 포함한 부단장, 네 명의 총무, 회계, 정보부장, 악보부장, 서기 등 집행부의 임원진과 元鍾洙(성악85-89)지휘자, 반주

특히, 2008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친 Bradley Ellingboe ‘Requiem’ 전곡 한국초연을 비롯해 Vaughan Williams ‘Mass in G minor’, Mozart ‘Requiem’, Cesar Franck ‘Messe in A’, John Rutter ‘Mass of the Children’, Brahms ‘Liebeslieder’, John Rutter ‘Magnificat’, Handel ‘Messiah’ 전곡 연주, Gabriel Faure ‘Requiem’ 등 매년 새롭게 시도되는 공연 형식과 무대 및 객석의 생생한 공감을 자아내는 재치 있는 곡 해설을 통해 OB합창단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대외적으로 합창단의 이름도 알리는 한편 단원들 실력을 가늠해 보기 위해 정기공연 외 전국규모의 합창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29회 태백 전국 합창경연대회’, ‘제8회 LG취센 합창페스티벌’, ‘제7회 창원 전국 그랑프리 합창제’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金단장은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25년 역사 지닌 테니스 동호회

매년 3회 정기대회 열어 친목 도모



지난해 4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이순테니스대회에 참석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운데 여성)와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좌로부터 두 번째 申東澈회장.

흘렀고 그 당시에는 나무 라켓을 들고 짚으로 만든 네트를 친 코트에서 경기를 했다”며 기억을 떠올렸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10·26사건을 일으킨 金載圭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姜信玉동문은 “테니스 붐이 일었던 1972년 무렵부터 치기 시작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전국 각지에 골프장이 생기기 시작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골프장으로 몰려가 버렸지만 나는 오로지 테니스에만 애정을 쏟은 테니스광으로 남았다”고 회고한 뒤 “민정학련 사건 당시 학생들을 변호하다 구속을 당해 형무소에 있을 때에도 테니스를 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모교를 졸업한 뒤 사회 각처에서 활약하며 테니스로 건강을 지키던 동문들이 이순테니스회를 결성한 것은 故 馬景錫(화학공학45-48 前호마기술 회장)동문의 열정적인 테니스 사랑에 힘입은 바가 컸다. 1987년 故 閔寬植(농학40졸 前대한체육회 명예회장)·鮮于良國(치의학47졸 모교 치의학과 명예교수)·全兢烈동문 등 7명의 창립 멤버와 함께 모임을 결성한 馬동문은 이후 1997년부터 3년 동안 초대 회장을 지내며

근하기 전에 한 시간 반 가까이 테니스를 즐긴다. 하체건강 유지에 테니스만한 운동이 없다”며 강한 애착을 보였다. 韓榮成동문도 “이순테니스회에 팔소조가 있다는 사실은 80세가 넘어서도 테니스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운동이 대중의 선입견처럼 격렬한 운동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동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험에서 우러나온 추천의 뜻을 전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동문들의 건강과 친목 증진에 이바지해 온 이순테니스회이지만, 최근 테니스 동호인의 감소와 기존 회원의 연로화에 따라 대회 참가율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 회장단의 걱정을 사고 있다. 申東澈회장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회원을 모시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모교의 교수 몇 분을 새로 초대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입회원을 모집할 것”이라며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이순을 넘어 고회와 팔손의 나이조차 무색하게 하는 강건함으로 매일 코트 위에서 스매시를 날리는 이순테니스회 회원들. 그들의 무한한 체력과 열정이 10년, 20년 뒤에도 늘 한결같기를 기대해 본다. 〈載〉

1984년 창단…매년 2회 정기공연

최고 하모니로 3개 대회 대상 수상



지난 7월 ‘창원 전국 그랑프리 합창제’에서 영예의 그랑프리(대상)를 수상한 후 익살스런 모습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 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에 각 두 명씩 총 여덟명의 파트장으로 구성된 지휘부를 필두로 50~60명의 단원들이 정기 연습을 갖고 있다.

金단장은 “합창단은 학부를 갓 졸업한 사회 새내기부터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된 장년층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많은 단원들이 사회인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매주 연습실에 50명 안팎의 단원들이 모여 元鍾洙지휘자의 손 끝에 따라 충실히 연습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시즌 새롭게 총무를 맡게 된 任仁淑(물리교육03-08)동문은 “새로운 취미를 따로 찾지 않아도 매주 일정한 시간에 지인들과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어 합창단 생활은 제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창단 생활을 소개했다.

OB합창단은 지난 1992년 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5월에 정기공연을, 격년제로 11월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공연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매년 봄과 겨울 두 번의 정기공연을 하고 있다.

연습을 하고 있으며, 공연날짜가 정해지면 참여할 수 있는 단원들을 우선 모집한 뒤 연습을 진행하고 있어 각 대회마다 참가하는 단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원도 있다”고 설명한 뒤 “지금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30회 정기공연 연습이 한창”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합창단 역량 강화 및 참가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 연주회 준비가 3~4개월에 걸쳐 진행돼 오는 11월 정기공연이 끝난 뒤 내년 5월 공연 전까지 한달 정도 여유가 생기는 만큼 오는 12월에는 단원들의 음악적 역량 향상을 위한 발성 클래스, 뮤지 캠프 등 특별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며 “그 외에도 모교 합창단 동문회(회장 李昇美 가정관리83-87)에서 진행하는 각종 소모임과도 연계해 더 많은 동문들이 합창단 연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OB합창단은 공연수익금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등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에도 합창을 통한 봉사활동 및 합창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香〉



吳然天총장 식사 〈요지〉

저는 시대의 주역이 될 여러분께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체득한 인본적 가치를 더욱 굳게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전문역량은 더욱 크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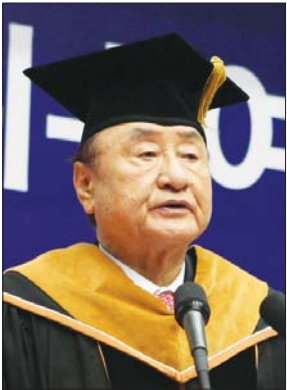
우리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근본 원인의 하나는 인간의 가치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고 또 답이 있습니다. 넓고 깊게 생각하고, 편향되지 않은 판단을 하며, 남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자세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재의 선행조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팀워크를 잘 이뤄나가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 혼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능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성과를 얻는 사람은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인재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완벽한 팀을 만드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겸허히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살려줌으로써 공동체의 창조적 가치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셋째, 여러분이 앞으로 전념하게 될 분야에서 다양성과 유연함을 중시하면서 창조적 사고를 통한 가치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더욱 복잡해져 우리들이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넓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와 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늘 새롭게 공부해 인간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인 성과를 내리라 확신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인본적 가치, 협력적 인간관계,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회와 세계에 크게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과 가족들의 앞날에 무궁한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이제 졸업생 여러분은 그동안 정들었던 캠퍼스를 떠나 풍량이 요동치는 사회로의 첫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명실공히 이 시대가 선택한 최고의 엘리트이기에, 혼란한 시국이 야기하는 예측불허의 위험을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의 기회로 거뜬히 승화시키는 ‘시대의 정리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이 세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부단한 노력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최대의 정신적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불성실한 것”이라며,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현대인의 삶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 동문 여러분이 성실이라는 이름의 숯돌로 도전정신이라는 이름의 칼을 부단히 갈고 닦아, 실패라는 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성공이라는 보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문과 가족 여러분!

우리 모교는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체질을 갖추기 위해 올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발표된 QS 세계대학평가에서 42위를 차지했고 올해 6월에 발표된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는 동경대를 제치고 4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세계 정상에 오르겠다는 집념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뛰어난 국민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 서울대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안에 모교에 대한 금지가 살아 숨쉬는 한, 총동창회가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교가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66회 후기 학위수여식…2천4백68명 배출

吳총장 “세상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郭永駟·孔大植부회장, 모교 吳然天총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洪起玄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4백86명, 석사 1천81명, 학사 9백1명 등 총 2천4백6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단과대학(원) 별 회원현황

구 분	8월 졸업	총 회 원
인 문 대 학	74	11,565
사 회 과 학 대 학	148	15,519
자 연 과 학 대 학	68	11,449
간 호 대 학	3	3,573
경 영 대 학	67	7,368
공 과 대 학	226	44,889
농업생명대학	80	21,553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33	5,534
법 과 대 학	54	16,843
사 법 대 학	99	26,620
상 과 대 학	—	6,723
생활과학대학	29	4,367
수 의 과 대 학	—	2,366
약 학 대 학	—	6,350
음 악 대 학	19	7,854
의 과 대 학	1	11,638
치 과 대 학	—	6,049
자유전공학부	—	1
대 학 원	1,253	95,043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국 제 대 학 원	42	794
보 건 대 학 원	43	3,552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109	4,756
환 경 대 학 원	33	2,763
치의학대학원	—	348
융합과학대학원	19	72
경영전문대학원	66	579
법학전문대학원	2	124
소 계	2,468	330,149
준 회 원	—	13,338
(특 별 과 정)	742	21,013
총 계	3,210	364,500

吳然天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인본적 가치, 협력적 인간관계,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회와 세계에 크게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의 미래”라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정신과 부단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어 알카텔 루슨트 벨연구소 金鍾勳사장이 특별 연사로 초청돼 ‘행복의 추구’라는 주제로 영어 축사를 했다. 김사장은 “선의를 함양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이 꿈꾸고 있는 여정을 떠난다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처음으로 졸업생 대표 연설이 포함됐다. 후기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설 공모에서 선정된 申善浩(교육05입) 군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고 낮은 곳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서울대인”이라 말하

며 졸업생을 대표해 연설했다.

이날 식전 행사에서 그룹사운드 ‘자이브’, 댄스스포츠 동아리 ‘스핀’, 아가펠라 동아리 ‘인트루’ 등 재학생의 공연이 있었으며, 기악과 金泳律(기악76-80)교수가 지휘하는 ‘SNU WIND 앙상블’의 축하 연주로 청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한편 이날 1950년 모교 재학 중 6·25전쟁으로 인민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제적당한 故 金炯甲(전기공학49입 캐나다 마니토바대 교수)동문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김원희-이수현 ▲사회대 : 이명지-이준상 ▲자연대 : 이희준-김재석 ▲경영대 : 이 호-정중원 ▲공대 : 신동화-이지행 ▲농생대 : 양동혁-이화광 ▲미대 : 이명주-김현정 ▲법대 : 김세이-김동호 ▲사대 : 서단비-이기태 ▲생활대 : 방세형-이상아 ▲음대 : 유웅재(총동창회장상) 〈沅〉

교수 25명 퇴임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8월 31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25명의 정년·명예퇴임식이 열렸다.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黃璟植(철학)교수, 河英善(정치외교학)교수, 金光億(인류학)교수, 朴誠愛(간호학)교수, 李鎬仁(화학생물공학)교수, 姜錫昊(산업공학)교수, 崔恒洵(조선해양공학)교수, 全孝澤(에너지시스템공학)교수, 玄正悟(산림과학)교수, 文龍

鱗(교육학)교수, 朴成益(교육학)교수, 姜淳範(의학)교수, 閔陽基(의학)교수, 申熙澈(의학)교수, 尹在一(의학)교수, 金相駿(의학)교수, 安孝燮(의학)교수, 金信福(행정학)교수, 金榮九(치의학)교수, 金重守(치의학)교수

또한 尹希苑(국어교육)교수, 朴在亨(의학)교수가 명예퇴직, 이명수(화학)교수, 정세호(제약학)교수, 柳仁鈞(의학)교수가 의원면직했다.

한편 姜光夏(경제학)교수는 정년을 앞두고 8월 22일 별세했다. 〈다음 호에 프로필 게재〉

모교 QS 세계대학평가 37위에 올라

작년보다 5단계 상승 ... 역대 최고 순위 기록

모교가 올해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서 37위에 올랐다.

2007년 5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09년 47위, 지난해 42위에서 5단계 상승해 30위권에 안착한 모교는 2004년 QS 평가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미국의 MIT가 지난해 3위에서 1위로 올라왔고, 영국의 케임브리지대와 미국의 하버드대가 2, 3위에 올랐다.

국내 대학 가운데 1백위권 안에

는 모교와 KAIST(63위), 포스텍(97위)이 차지했으며, 2백위권 안에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한 연세대(1백12위)와 고려대(1백37위), 성균관대(1백79위)가 각각 순위에 랭크됐다. <표 참조>

QS 마틴잉스 학문자문위원장은 “올해 세계대학평가 결과 톱 2백위 대학에 한국 6곳, 중국 7곳, 일본 20곳이 포함됐다”며 “한국과 인접한 중국, 일본 세 나라 인구를 비교해 보면 한국 대학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2	2011	대 학(국가)
1	3	MIT(미국)
2	1	케임브리지대(영국)
3	2	하버드대(미국)
4	7	UCL(영국)
5	5	옥스퍼드대(영국)
6	6	임페리얼컬리지(영국)
7	4	예일대(미국)
8	8	시카고대(미국)
9	13	프린스턴대(미국)
10	12	Caltech(미국)
37	42	서울대(한국)
63	90	카이스트(한국)
97	98	포스텍(한국)
112	129	연세대(한국)
137	190	고려대(한국)
179	259	성균관대(한국)



까사미아 李炫九대표
5억 상당 물품 제공

모교는 지난 8월 14일 오후에 인테리어 디자인 브랜드 까사미아(대표 李炫九 대학원08졸)와 기숙사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 기부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까사미아는 5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해 모교 대학원 기숙사 918동 지하 1층에 휴게공간인 '까사미아홀'을 조성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의 총 3백6개 방의 낡은 가구를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교체해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까사미아는 주거공간을 창조하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또한 가구 기증, 자선 바자회, 정기 사회봉사 등 꾸준한 사회공헌을 펼치며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농대 李賢秀동문
1억 상당 주식 기부

지난 8월 13일 독일 바이오 기업인 (주)사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李賢秀(농화학60-64)고문이 본인이 보유한 1억원의 (주)셀트리온 주식을 모교에 기부했다.

모교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吳然天총장과 李賢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기부금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주)셀트리온 상임고문을 지낸 李동문은 동식물 세포배양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대규모 동물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생물약공장 건설을 주도해 발효와 배양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기도 했다. 또한 평소 모교와 농생대의 발전을 위해 연구기자재 지원 등 꾸준한 기부를 실천해왔다.

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박사과정 재학생 49명에게 연간 2천만원 내외, 박사학위논문 준비 수료생 47명에게 연간 2천5백만원 내외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모교는 기초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을 계기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로의 도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모교 박물관장에
李鮮馥교수 임명



지난 9월 1일 모교 박물관장에 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 李鮮馥(고고75-79)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李관장은 모교를 졸업한 뒤 1982년 아리조나주립대에서 인류학 석사, 1986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모교에 부임한 李관장은 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장, 한국고고학회 평의원 등을 역임했다.

모교 병원

국가브랜드지수 1위

모교 병원(원장 丁憲源)은 지난 8월 27일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종합병원 부문'에서 2010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기업의 마케팅활동, 인지도, 신뢰도, 충성도 등을 조사 평가해 지수화한 것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제조업을, 하반기에는 서비스업을 조사한다. 올해 서비스업에 대한 조사는 지난 5~7월에 실시됐다.

서울 거주자 3천5백명에게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된 종합병원 부문에서 모교 병원이 72점으로 삼성서울병원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원>

QS 세계대학순위는 연구·교육·졸업생·국제화 등 4개 분야를 주요 기준으로 한다.

연구분야는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20%)와 학계 평가

(40%)로 이뤄진다. 올해 학계 평가는 세계 학자 4만6천명에게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대학 30곳을 꼽아달라'고 했다.

졸업생 평판도(10%)는 세계 기업인 2만8천명에게 '채용을 선호하는 대학'에 대해 질문했다. 학생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수 1인당 학생 수(20%)로, 국제화는 외국인 학생 비율(5%)과 외국인 교수 비율(5%)로 평가했다.

潘基文 UN사무총장

글로벌의학센터 개소식서 강연

지난 8월 13일 모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3층 대강당에서 글로벌의학센터 개소식 및 潘基文(외교63-70)UN사무총장의 특별강연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丁憲源(의학69-75)병원장, 姜大熙(의학81-87)의대 학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개소식에 앞서 모교 의과대학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가 본 센터를 서태평양지역 보건 의료인 교육을 위한 지역교육개발센터(REDC)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潘사무총장의 강연은 이날 행사 후반에 '의대생이여, 세계를 치료하라'는 주제로 약 30분간 이뤄졌다. 그는 "세계의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UN 사무총장이 됐다"고 말하며 "의사가 병을 고친다면 나는 각국 제도를 수술해 세계의 병을 고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1백여 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여러분과 나 모두 인간성과 연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潘사무총장은 끝으로 "임기 내에 말라리아, HIV 등 주요 5대 질병을 없앨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의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의학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지낸 故 李鍾郁(의학70-76)박사의 정신을 계승해 설립됐다. 센터는 서울대 교수들의 국제보건의료활동을 지원하고 정부·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 실정에 맞는 의료기술과 지식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대발전기금 희망장학금

“어려운 재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희망장학금 사용 용도

- ◆가계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 전액 등록금 면제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 매월 생활비 지급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 해외수학비용 지원
 - ※ 가계소득 5분위 이하란? 환산소득 연 4,093만원 이하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기준)

희망장학금 참여 방법

- ◆무통장 입금(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1006-601-280134
- ◆온라인 약정: www.snu.or.kr
- ◆전화참여: 02)880-8004, 02)871-8146
- ◆ARS 후원 060-700-8004(1통당 5천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吳然天

기초학문후속세대 96명에 장학금 지원

모교는 지난 8월 22일 기초학문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할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선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학문후속세대는 기초학문기획평가단과 별도 심사단의 엄정한 심

SENSING THE NEXT 안전과 안심

SECOM NS

에스원의 세콤NS를 만나면?

세콤NS는 에스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주는 정보보안서비스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없습니다**

DDOS 바이러스도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정보보안장비(UTM)도
구매할 필요 **없습니다**

뜬 눈으로 밤새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귀사의 성공 비즈니스, 에스원의 정보보안서비스 세콤NS와 함께하세요!

SECOM NS

•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와 전국 A/S 네트워크 망으로 실시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 악성코드 / 바이러스 / 스팸 등을 차단하는 보안 콘텐츠 기술 • 고성능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IPS)에 의한 네트워크 보안 • 보안장비 렌탈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정보보안 솔루션(PC보안, 문서보안, 바이러스 백신)의 구매도 에스원과 상의하세요

문의
전화 1588-6458

www.secomns.co.kr

Security No.1 에스원

SAMSUNG

ECONEX CO., LTD.
친환경 자동차 기술의 리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기업

자연 을 위한 기술
인간 을 향한 가치
미래 를 여는 혁신



Econex provides the eco-friendly business for the future.

Econex will continuously do its best to develop sustainable and steady green growth business for the future.

www.econex.com



콩트 릴레이

도둑고양이

鄭 鎬 暻(국어교육52-56)

前여수수필문학회장



쾌속 여객선 ‘데모크라시호’가 거문도 선착장에 닿자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촌리로 건너가는 나룻배가 우리 일행을 곧장 담아 싣고 떠났다. 그해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산등성이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여수 앞바다는 아득히 펼쳐진 초원 그대롭다. 사방으로 둘러앉아 있는 섬들이 바람을 막아 파도가 꿈쩍 못하게 머리를 눌러 놓았기 때문이다. 호수보다 잔잔했다. 바다는 흰 거품을 내뿜는 파도가 있어야 제맛이지 그렇지 않다면 뱃멀미 약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았겠는가.

매일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도 이젠 해묵은 이발소 그림이 되어 흥미를 잃고 따분하

할 집에 도착해서야 알았다. 남 선생의 남동생집도 근처에 있었지만, 거기는 식구가 많아 이쪽 누나 집으로 숙소를 정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짐을 풀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갈 낚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 선생 동생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방금 기상 예보에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 지금 곧 저녁을 먹고 어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부랴부랴 떠난 밤낚시에서의 수확은 그 캄캄하고 높은 파도 속에서도 정말 상상외의 수확이었다. 새색시 손바닥만 한 붉고 예쁜 참돔을 40~50마리씩이나 낚아 올렸다. 나의 지금까지의 낚시는 붕어낚시여서 바다낚시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은 별 것 아니었는데, 전문가 어부들이 쓰는 외줄

섬의 풍토에 마치 이국에 온 듯한 느낌에 호기심이 일었다.

남 선생의 자형 된다는 이 집의 주인장은 우리보다 두세 살 연상으로 보이는, 일본말을 가끔 섞어 쓰는 김씨라는 분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김씨의 인생행로와 사람됨을 남 선생에게서 이미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한쪽 무릎을 꿇어 세운 채 마루에 걸터앉아 먼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김씨의 옆모습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우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남 선생이 대뜸 입을 열었다.

“형님, 오늘 같은 강풍에는 어장이 뒤집혀 배를 띄울 수 없으니 형님의 낚시인생 체험담이나 좀 들어 봅시다.”

김씨는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작년 이맘때쯤 꼭 일 년이 되었네잉.”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면서 구수한 남도 사투리로 말문을 열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날이 가물면 바닷고기들도 식욕이 떨어지는지 입질을 하지 않았다. 띄약뿔 아래서 종일 공을 돌리고 있어도 빈 배로 돌아오는 날이 계속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웃집 젊은이가 먼바다로 한 번 나가보자는 제안을 해왔다. 김씨는 심심하던 차에 대뜸 며칠 분의 식량을 싸들고 초등학교 동창생

서야 바다 속의 그 괴물은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견 고래가 아니면 천 년 묵은 바다거북이 입에 틀림없었다. 죽을힘을 다한 두 사람의 버팀으로 일은 끝났다. 한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김씨와 젊은이가 혼몽한 의식에서 깨어났을 때는 동녘 하늘이 환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 얼마나 큰놈이었기에 기절까지 했어요?” 하고 남 선생이 슬쩍 비꼬아 물으니 까 김씨 대신 그의 누나가 양팔을 벌리면서 말했다. 2미터15센티에 105킬로나 되는 ‘돌돔(돼지돔)’이라는 것이 신문에도 났으니 믿어 달라는 표정이었다.

“돌돔이 그렇게 큰놈이 있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내가 물었다.

“돌돔이 땃이여, 귀가 먹었어? 돼지처럼 살찌고 크다고 해서 ‘돌돔’이 아닌 ‘돌돔’이라는 것이여!”

내가 알고 있는 돔의 종류로는 참돔·감성돔·줄돔·황돔·흑돔 등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김씨의 안색으로 봐서는 더는 따져 물을 수도 없었다.

“그래 그놈을 어떻게 처분했어요?” 하는 남 선생의 물음에 김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머리를 떨구었다. 이 대물 어획 소식을 들은 김씨의 사촌 처남이 어느 틈에 알고 달려와서 대뜸 20만원을 내놓고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커서 내 목숨을 잃을 뻔했던 대물이긴 했지만, 궁한 관에 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들려온 소문이었다. 그 녀석이 서울에서 온 장사꾼에게 100만원에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김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김씨의 아내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운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그가 거지 행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다.

사연인즉, 사촌 처남의 그 맹랑한 수작에 분통이 터진 김씨는 소주병을 한 박스 싸들고 무작정 낚시배에 올라 엔진에 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분함과 허탈감이 술에 범벅된 채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이 됐든 마구 바다로 집어던져 버린 뒤 술에 곤드레가 되어 잠에 빠져버린 몇 시간이 지난 뒤 술에서 깨어 보니 엔진이 꺼진 채 배는 파도에 밀려 정처 없이 흐르고 있더라는 것이다. 나침반을 찾았으나 남아 있을 리가 없었다. 간신히 엔진을 살려서 가다 보니 도착한 곳은 제주도 어느 조그만 어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고 남 선생이 눈을 깜박거리면서 물으니까 김씨는 배시시 웃고 있었다. 나는 따라 웃을 수도 없는 이 따분한 분위기를 바꿀 양으로 장독대에서 우리를 뻔히 바라보고 있는 두세 마리의 고양이들 가리키면서,

“집에서 고양이들 많이 기르나 보지요?” 하며 넌지시 물으니까,

“저 들고양이 놈들이 다 도둑고양이들이여, 길에서나 집에서나 온통 저놈들 세상이란게. 장독대에 말릴라고 널어놓은 생선들을 저놈들이 다 물고 가버리는 것 안 봤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생선들을 빨래처럼 간간짓대 줄에 걸어서 말리지 않는가. 이제 내 눈에는 사람이나 들고양이나 모조리 날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며. 내 말 알겠는가?”

김씨의 독기 어린 말에 웃음을 깨물며 비탈진 바윗길 아래 바다를 내려다보니 바다는 강풍에 뒤집혀 누더기처럼 팔러지고 있었다.

“

장독대에 말릴라고 널어놓은 생선들을
저놈들이 다 물고 가버리는 것 안 봤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생선들을 빨래처럼 간
간짓대 줄에 걸어서 말리지 않는가.
이제 내 눈에는 사람이나 들고양이나
모조리 날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며.

”



게 거실소파에 앉아 있는데, 서울의 직장 동료였던 남기호 선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고향이 거문도인 그는 피서 겸 낚시나 하려고 방금 열차에서 내려 여객선 터미널에 와 있으니 생각이 있으면 동행하자는 것이었다.

쾌속 여객선이 여수항을 출발해 두 시간 남짓을 파도를 가르고 달리니 거문도 부두에 와 닿았다. 거기서 조그만 나룻배로 거문리에서 유촌리로 건너가는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뱃머리에 닿으니 이미 전화 연락이 되어 있던지 60대로 보이는 갸마른 여인이 짐을 받아 머리에 이고 앞서 가면서 무슨 말인가 큰소리로 계속 지껄이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때 거센 해풍이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있기는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바람 소리였다 겹쳐서 지독한 섬 사투리 때문이었다.

거문도의 여러 섬의 중심지인 거문리와는 바로 이웃인데도 지붕의 엽음새를 비롯한 풍토가 사뭇 달라 보였다. 부두에서 짐을 받아 앞서 가면서 계속 떠들어대던 여인은 남 선생의 사촌 누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숙

낚시로 팽팡하게 끌어당기는 손맛을 톡톡히 보게 되어 지금까지의 붕어낚시와는 또 다른 맛에 매료됐다.

다음날은 예보대로 아침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후에는 강풍이 불어 닥쳤다. 어제 부두에서 산등성이 숙소로 올라오는 도중에 여기저기 눈에 띈 슬레이트 지붕에서 묘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어촌이니가 고깃배에서 사용하는 밧줄들을 쓰지 않을 때는 썩지 않게 하려고 지붕에 널어 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곳의 기상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데에서 생긴 오관이었다. 오늘 같은 강풍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불어닥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지붕 단속이라고 한다.

거의 집집이 굵은 밧줄을 지붕의 가로세로로 얹어맨 줄 끝에는 커다란 돌맹이를 매달아 놓았다. 바로 앞의 여객선이 닿는 거문리에서는 그런 지붕 단속을 해놓은 집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는데, 불과 1~2킬로 정도의 거리 차이인데도 이곳의 풍토는 많이 달랐다. 제주도의 지붕 엽음새와 비슷하면서 또 달랐다.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인 그의 아내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작별 인사까지 하면서 해질 무렵에 낚시배의 엔진에 발동을 걸었다. 거문도에서도 두세 시간을 더 남쪽으로 내려온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닻을 내렸다. 집에서 망치로 두들겨 손수 만든 갈고리만 한 낚시에 미끼를 꿰어 바다 깊숙이 던져 놓고 이를 밤을 꼬박 새운 사흘째 되던 날 세 시경에 덜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한쪽으로 휘청했다. 대물을 노리고 체비한 줄과 바늘이긴 했지만, 철십 노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었다. 저는 젊은이에게 고함을 내질렀다. 7월의 그믐밤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고, 거센 파도만이 물귀신의 치맛자락처럼 팔려거리며 뱃전을 내리치고 있었다. 한평생을 바다와 싸워 왔지만, 농담 섞인 그의 아내와의 작별 인사가 오늘따라 불길한 예감으로 마음을 흔들면서 팔의 힘을 서서히 빼고 있었다. 밧줄 같은 낚시줄이 뱃전을 스칠 때마다 우두둑우두둑 하는 소리가 가슴팍의 살을 뜯어내는 듯했지만, 낚시줄을 늦추었다가 감았다 하는 익숙한 손놀림은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됐다. 이런 긴장이 세 시간이 지난 아침 여섯 시 경에

동 정

수 상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본회 부회장)=오는 10월 8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로부터 제26회 인촌상(공공봉사 부문) 수상.

▲鄭錦暉(국어교육52-56 前여수수필문학회장)=지난 8월 17일 전남 여수시 민회관에서 열린 제12회 수필의 날 기념식에서 제5회 올해의 수필인상 수상.

▲金允植(국어교육55-59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9월 14일 제1회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문학상 시상식에서 황순원문학연구상 수상.

▲崔吉洙(의학55-61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최근 한국인 최초로 세계신경외과 학회가 수여하는 명예훈장 수상자에 선정.

▲李成茂(사학56-60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지난 8월 10일 재단법인 실시학사로부터 제2회 韓史학술상 수상.

▲安三煥(독문62-66 모교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오는 11월 16

일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아름 및 빌헬름 그림 상' 수상.

▲林榮澤(국문62-66 성균관대 명예교수)=오는 10월 8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로부터 제26회 인촌상(인문사회문학 부문) 수상.

▲權五鉉(전기공학71-75 삼성전자 부회장)=오는 10월 8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로부터 제26회 인촌상(산업기술 부문) 수상.

▲金春善(지리73-77 인천항만공사 사장)=최근 서울 조선히otel에서 열린 2012년 스카트경영 CEO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

▲鄭炳鎭(정치77-82 한국일보 주필)=지난 9월 4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8회 한국 참언론인대상(사회 부문) 수상.

▲金榮範(사회81졸 대구대 교수)=지난 8월 8일 '혁명과 의열'이란 저서로 제8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

▲李泰根(농학78-84 흙살림 회장)=지난 9월 1일 一家재단이 수여하는 제22회 일가상(농업 부문) 수상.

▲金鎭國(정치78-85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본보 논설위원)=지난 9월 4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8회 한국 참언론인대상(정치 부문) 수상.

▲尹柱弼(인류84-90 부산MBC 보도국장)=지난 9월 4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8회 한국 참언론인대상(지역언론 부문) 수상.

▲許文明(가정관리86-90 동아일보 오피니언팀장·본보 논설위원)=지난 9월 4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8회 한국 참언론인대상(인터뷰 부문) 수상.

▲具藝璃(국어교육95-99 경향신문 기자)=최근 한국편집기자협회로부터 제131회 이달의 편집상(피처 부문) 수상.

▲李昌儀(ALP 10기 조선매거진 대표·한국잡지협회장)=지난 9월 4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8회 한국 참언론인대상(잡지언론 부문) 수상.

▲金淇春(법학58-62 前검찰총장·前법무부장관·변호사)=지난 8월 23일 한국에너지재단 제3대 이사장에 선임.

▲趙鎭民(물리62-66 모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울산과기대 석좌교수)=지난 8월 27일 건국대 석학교수에 임용.

▲鄭東俊(행정65-6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서초구지회장)=지난 8월 28일~9월 2일 우정문화주간에 1일 우정총국 명예우체국장에 임명.

▲金源培(제약67-71 동아제약 사장·한국바이오헬스 이사장)=지난 8월 22일 한국제약협회 제10대 이사장에 선출.

▲姜命得(지구과학교육70-75 前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변호사)=최근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

▲金明坤(독어교육71-76 前문화관광부 장관)=지난 8월 9일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문화예술행사 총감독에 위촉.

▲金貳煥(신대원72-75 중앙대 객원교수·언대원 동창회장)=지난 8월 27일 미디어영상교육진흥센터 제2대 이사장에 취임.

▲李俊煥(법학72-76 前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前외교안보연구원장)=지난 8월 21일 駐인도 대사에 임명.

▲金光洙(사회교육72-76 강원대 교수)=지난 8월 2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사업 중장기 자문단 경영자문관에 선임.

▲鄭寅億(경제73-77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보통신위원회 부의장)=지난 8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에 임명.

▲金凡徹(해양77졸 강원대 교수)=지난 8월 20일 임기 2년의 한국하천호수학회 제24대 회장에 선출.

▲高廷植(화학공학73-77 前산업자원부 에너지 정책본부장·前특허청장)=지난 8월 7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임명.

▲孫世周(불어교육73-81 前외교통상부 본부대사·前駐튀니지 대사)=지난 8월 21일 駐뉴욕 총영사에 임명.

▲具本友(외교74-78 前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前駐샌프란시스코 총영사)=지난 8월 21일 駐브라질 대사에 임명.

▲秋淵坤(외교74-78 前駐엘살바도르 대사·대전시 자문대사)=지난 8월 21일 駐과테말라 대사에 임명.

▲申吉壽(경제74-78 前駐몬트리올 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부 대사)=지난 8월 21일 駐그리스 대사에 임명.

인 사



광물이 없으면 1등도 없다?

세계일류 코리아는 광물자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휴대폰 속에는 리튬이, LCD 속에는 희토류가
세계적인 코리아 브랜드 속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습니다.

광물이 없이는 1등 코리아도
올림픽 금메달도 없습니다.
KORES가 KOREA를 응원합니다.

www.kores.or.kr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

▲**全泰東**(동양사학74-78 前외교 통상부 동남아과장·前駐시안 총영사)=지난 8월 21일 駐이스탄불 총영사에 임명.

▲**金承佑**(기계설계74-78 KAI ST 교수)=지난 8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12년 국가과학자에 선정.

▲**裴永漢**(불어교육74-78 前외교 통상부 홍보관리관·前駐그리스 대사)=지난 8월 21일 駐스위스 대사에 임명.

▲**金昌基**(외교74-81 조선뉴스프레스 사장)=지난 8월 31일 한국신문협회 출판협의회 회장에 선임.

▲**吳聖三**(대학원77졸 前건국대 사대부교 교장·건국대 교수)=지난 9월 1일 인천 송도고교 교장에 임용.

▲**辛承昊**(물리교육78졸 前강원대 기획부처장·기획협력처장)=지난 8월 27일 강원대 제10대 총장에 취임.

▲**崔哲永**(독문79졸 前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 대표)=지난 8월 21일 駐제네바 대사에 임명.

▲**崔錫仁**(서양사학75-79 前駐이르쿠츠크 총영사)=지난 8월 21일 駐아제르바이잔 대사에 임명.

▲**金大棋**(경제75-79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지난 8월 9일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에 임명.

▲**金道薰**(무역75-79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8월 21일 한국규제학회 제7대 회장에 선임.

▲**金政民**(화학75-79 前녹십자 종합연구소 상무)=지난 8월 10일 제일약품 중앙연구소장에 선임.

▲**鄭 日**(영어교육75-81 前외교 통상부 중동과장·前駐몽골 대사)=지난 8월 21일 駐탄자니아 대사에 임명.

▲**李惠民**(영문76-80 前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 대표·駐필리핀 대사)=지난 8월 21일 駐프랑스 대사에 임명.

▲**吳在鶴**(산업공학76-80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지난 8월 23일 철도복합환승센터포럼 초대 회장에 선임.

▲**權純一**(법학77-81 前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지난 8월 13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

▲**孫成珍**(독문80-84 서울신문 편집국 사회에디터)=지난 8월 1일 서울신문 편집국장에 선임.

▲**姜奉均**(미생물80-84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지난 8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12년 국가과학자에 선정.

▲**李基權**(행정81-83 前고용노동부 차관)=지난 8월 10일 임기 4년의 한국기술교육대 제7대 총장에 선임.

▲**李相輝**(화학공학82-86 KAIST 특훈교수)=최근 세계경제포럼 산하 생명공학 글로벌 아젠다 카운슬 초대 의장에 선임.

▲**金玉淵**(약학86-90 말레이시아 안센 사장)=지난 8월 2일 한국안센 사장 겸 북아시아 총괄 사장에 선임.

▲**任宰賢**(경영89-96 前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뉴미디어비서관)=지난 8월 9일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임명.

▲**李烈模**(회화53-61 前성균관대 미술교육학과 교수)=아직도 노익장으로 LA에서 창작에 정진 중인 **李동문**은 9월 20일~

11월 4일(경기도 이천시 월전미술관), 10월 18일~28일(서울 팔판동 한벽원갤러리) '자연에 취한 한 세상'을 주제로 팔순 기념 회고전 개최.

▲**俞東濬**(잠사56-60 先農會 회장·부운장학회 이사장·수원지부동장회장)=지난 8월 23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대학(원)생 1백57명에게 장학금 1억5천만원 전달.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지난 8월 21~24일 라오스를 방문, 새마을운동 교육과 사업 추진 상황 점검.

▲**南 徹**(조소57-62 충남대 명예교수)=지난 8월 13~23일 미국 뉴욕 암스테르담 휘트니 갤러리에서 'Stories from the Stars'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柳宗昊**(조소60-64 중앙대 명예교수)=지난 9월 5~11일 서울 공평동 공평아트센터에서 '月印' 작품으로 개인전 개최.

▲**朴興日**(영어교육60-64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이사장)=지난 9월 1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2회 서울대-직장선교

비전포럼 개최.

▲**辛永茂**(법학63-67 대한변호사협회장·법대동창회장)=지난 8월 2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제2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66회 변호사연수

회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9월 3~21일 수원야외음악당 등지에서 '예술, 수원을 밝히다'를 주제로 제8회 수원예술인축제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8월 30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토지이용제도와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임대법의 개정'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辛鉉雄**(지리64-68 웅진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8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웅진코웨이R&D센터에서 제4기 장학생 1백4명을 대상으로 하계 멘토링 행사 개최.

▲**李成俊**(고고인류64-69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 안보 위기 시 군 취재보도 권고 기준안'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張世昌**(전기공학65-69 파워맥스 회장·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전기동문회장)=지난 9월 11~14일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 '한국전기산업대전' 개최.

▲**梁 建**(행정66-70 감사원장)=지난 8월 28일 서울 삼청동 감

행 사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몸이 아프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결혼을 잘 하려면 뛰어난 결혼정보회사를 만나야 합니다.
수준높은 특별한 만남을 원하신다면, 엔노블과 상담하십시오.

- 철저한 비공개 회원관리 •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추천, 경향신문 유망브랜드 대상 수상
- KBS TV가이드 제휴사 •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N 엔노블 결혼 정보 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명문대 의사들과 함께하는 DOCTOR PARTY

- ◆ **참가자격** | 남성 : SKY대 및 명문대 의사
여성 : 엔노블 정회원 or 비회원
- ◆ **일 시** | 2012. 10. 13 (토) 16시
- ◆ **장 소** | 르네상스호텔

CEO, 금융계, 전문직 남성들과 함께하는 PRI MEMBERS PARTY

- ◆ **참가자격** | 남성 : 전문직 남성
여성 : 정회원 or 비회원
- ◆ **일 시** | 2012. 10. 27 (토) 16시
- ◆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사원 대강당에서 개원 64주년 기념식 개최.

▲梁承泰(법학66-70 대법원장) = 지난 8월 18~30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3개국을 방문, 사법협력 방안 논의.

▲金兌完(교육67-71 한국교육개발원장) = 지난 8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학교 교육개혁의 국제 동향: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朴在甲(의학67-73 모교 외과학교실 교수·한길모임 회장) = 오는 9월 17일 모교 연건캠퍼스 삼성암연구관에서 '삶과 죽음'을 주제로 제10회 세미나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한국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 지난 8월 29일 보훈단체 간부를 대상으로 '정부, 해양연구 선진화'를 주제로 안보 강의.

▲金相容(법학69-73 연세대 교수) = 지난 8월 30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북한의 토지이용제도와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임대법의 개정'을 주제로 강연.

▲愼昌宰(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회장·본회 부회장) = 지난 9월 6일 서울 관훈동통인회관에서 열린 백석탄생 백주년 기념

문화그림전에서 시 낭송함.

▲韓民求(서양사학77-79 前합참의장·미래국방포럼 초대 의장) = 지난 8월 2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미래국방포럼 창립총회 겸 기념식 개최.

▲朴在鶴(수의학77-82 모교 수의학과 교수·한국실험동물학회 이사장) = 지난 8월 23~25일 충남 롯데부여리조트에서 한국실험동물학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柳在祿(행정원78-80 군산대 교수·한국정책학회 회장) = 지난 8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정보 사회의 정부 역할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崔炳鎔(경제78-82 한국경제연구원장) = 지난 9월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및 세계경제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許增秀(금속공학79-83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지난 8월 28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필리프 브누우 에너지 효율·환경국장을 초청해 에너지 효율 세미나 개최.

▲鄭天基(의학79-83 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대한척추중추연구회장) = 지난 8월 18일 한양대 의대에서 제6차 대한척추중

추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安泳娜(회화80-84 서원대 교수) = 지난 9월 5~18일 서울 관훈동 스페이스 이노에서 'Blue Flowers' 작품으로 개인전 개최.

▲李鍾默(국문80-88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최근 세계절을 묘사한 한시들을 모아 '한시마중'(태학사) 출간.

▲崔眞珠(회화81-85 前경북대 강사·한국화가) = 지난 9월 11~16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멀티아트홀에서 '지나간 봄-흐린 기억'을 주제로 제10회 개인전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N 대표·본보 논설위원) = 지난 8월 11일 캄보디아의 지뢰를 제거하며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키라 지뢰박물관장을 초청해 만찬간담회 개최.

▲金蘭都(사법82-86 모교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 최근 사회초년생을 위한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오우아) 출간.

▲權赫仁(행정원86-88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 지난 8월 23~24일 태국 랏팡에서 태국 산업광업국·전력공사와 鑛書방지 국제워크숍 개최.

▲윤승현(작곡87-92 이화여대 교수) = 지난 9월 11일 서울 부암동 부암아트홀에서 'Prism on 24

개최.

▲조기현(기악02-06 바이올리니스트) = 오는 9월 28일 베트남 호치민시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베트남국립교향악단과 베토벤 협주곡 협연.

▲洪性奎(AMP 60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지난 8월 24일 미국 통신장비 회사인 시스코의 제프 프레이저 부사장을 만나 정보통신기술 발전방향 논의.

▲李義鉉(AIP 20기 대일특수강 대표·중앙대 겸임교수) = 지난 8월 27일 '직장생활과 예절'이라는 교과서 출간.

Strigns' 작곡 발표회 개최.

▲임명진(기악93-97 클라리네스트) = 지난 9월 15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슈만, 생상스, 크루셀 등의 작품으로 클라리넷 독주회 개최.

▲金姬廷(기악96-00 피아니스트) = 오는 9월 17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A Song for the Soul' 피아노 독주회 개최.

▲임금희(성악02-06 소프라노) = 지난 9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바흐, 로시니, 드뷔시 등의 작품으로 독창회

▲徐英甲(토목공학44-47 고려대 명예교수) = 8월 7일 별세(91세)
▲朴秉鎔(건축45-52 고려대 명예교수) = 8월 29일 별세(87세)
▲申熙明(물리교육49-54 모교 명예교수) = 8월 25일 별세(82세)
▲金基廷(의학50-56 순천향대 명예교수) = 9월 2일 별세(82세)
▲曹圭松(생물교육51-55 前강원대 대학원장) = 8월 23일 별세(83세)
▲陳夫鉉(교육심리52-56 前동아대 교수) = 8월 19일 별세(78세)
▲金正淑(영어교육55-59 한국여류화가회 회원) = 8월 24일 별세(75세)
▲李滿益(회화57-61 前서울올림픽 미술감독) = 8월 9일 별세(74세)
▲李大寧(물리64졸 경희대 명예교수) = 8월 22일 별세(72세)
▲鄭 男(외교59-64 前국회의원) = 9월 5일 별세(71세)
▲李海鳳(행정62-67 前국회의원) = 8월 19일 별세(70세)
▲姜光夏(경제67-71 모교 경제학부 교수) = 8월 22일 별세(65세)
▲金潤澤(경대원68-70 양전장학회 이사장) = 8월 19일 별세(87세)
▲李炳益(AMP 6기 혜전학원 설립자) = 8월 24일 별세(84세)

■ 참가 명부를 씁니다 ■

- ▲徐英甲(토목공학44-47 고려대 명예교수) = 8월 7일 별세(91세)
- ▲朴秉鎔(건축45-52 고려대 명예교수) = 8월 29일 별세(87세)
- ▲申熙明(물리교육49-54 모교 명예교수) = 8월 25일 별세(82세)
- ▲金基廷(의학50-56 순천향대 명예교수) = 9월 2일 별세(82세)
- ▲曹圭松(생물교육51-55 前강원대 대학원장) = 8월 23일 별세(83세)
- ▲陳夫鉉(교육심리52-56 前동아대 교수) = 8월 19일 별세(78세)
- ▲金正淑(영어교육55-59 한국여류화가회 회원) = 8월 24일 별세(75세)
- ▲李滿益(회화57-61 前서울올림픽 미술감독) = 8월 9일 별세(74세)
- ▲李大寧(물리64졸 경희대 명예교수) = 8월 22일 별세(72세)
- ▲鄭 男(외교59-64 前국회의원) = 9월 5일 별세(71세)
- ▲李海鳳(행정62-67 前국회의원) = 8월 19일 별세(70세)
- ▲姜光夏(경제67-71 모교 경제학부 교수) = 8월 22일 별세(65세)
- ▲金潤澤(경대원68-70 양전장학회 이사장) = 8월 19일 별세(87세)
- ▲李炳益(AMP 6기 혜전학원 설립자) = 8월 24일 별세(84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B112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2011~2012 6개부문 대賞수상!!

한국소비자선호브랜드大賞
(사)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일간스포츠

대한민국혁신우수기업大賞
(상조혁신우수기업부문/한국일보)

고객감동&POWER KOREA大賞
(상조혁신기업부문/스포츠투서울)

대한민국소비자선호대표브랜드大賞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한국경제신문

고객행복경영大賞
(서비스마케팅학회/스타지식경영원/동아일보)

한국문화·관광브랜드大賞
(사)한국 문화관광평가연구원/해럴드경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

모든 상조회사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향군상조회

경제적인 향군상조회

편리한 향군상조회

회계의 투명화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액 제 1 금융권 예치

외부감사를 통한 기금의 안정성 회계의 투명성 보장

고객환급의무액인 유동성 자금을 112% 보유

전국 의전직영화 운영

국가유공자 우대혜택

만기가 지나도 권리 보장, 양도양수 가능

전국 협력업체 시설 이용 및 할인 혜택

건강 : 전국 협력병원 건강검진 할인

레저 : 전국 협력 숙박시설 할인

웨딩 : 웨딩관련 서비스 할인

전국 의전직영망을 통한 전문화된 장례지도사, 도우미 지원

고급리무진, 운구버스, 엠블런스 등 차량지원

100% 대마 수의 등 60여가지 장례용품

장례관련 행정처리 및 서류 일체 안내

국가유공자 인정신청 대행

5천만 국민 누구나! ☎1577-0720 www.korvafamily.com

재향군인회 상조회

Morgan Crucible

‘카본’, ‘세라믹단열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모간이 있습니다.



Thermal Ceramics

세계최초 바이오슬러블 웰빙 단열재(친환경)
Superwool, 세라믹화이버, 세라믹보드, 파이로블록 모듈 외



Engineered Carbon

첨단 카본분야의 리더
초고순도 Glassy Carbon 합침 및 코팅, Graphite 제품, Carbon Felt 외



Electrical Carbon

카본이라면 ‘가람카본’
산업용 카본브러쉬, 집전자용 카본, 슬립링 외



Graphite 열교환기

세계적인 흑연 열교환기
Graphite Shell & Tube Heat Exchangers 외



www.morgankorea.kr
E-mail : karahm@karahm.co.kr

성남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39-3
전화(031)735-5100 팩스(031)735-5106

카본 공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복리1-14
전화(053)615-1061 팩스(053)615-1063

세라믹공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복리1-31
전화(053)616-2091 팩스(053)616-2095

www.lh.or.kr



1962년, 최초의 아파트단지 건설
1971년, 최초의 서민 임대아파트 건설
1989년,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1996년,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2005년,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2006년, 경제 자유구역 건설
2009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할아버지의 대한민국으로부터
나의 대한민국까지
변화의 중심에
늘 LH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가 하는 일은?

공공 택지의 80% 공급
(여의도 면적의 213배)

총 448만호의 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의 80%)

장기임대주택의 72% 건설
(시세 30~60%의 저렴한 임대료)

산업단지 조성으로 169조원 생산,
32만명 고용 (전체 산업단지 생산액의 24%)

우리금융그룹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아빠!
우리아비바

Like Daddy 보장플랜은
아빠처럼 든든하고 편안하게
고객중심의 컨설팅과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아비바생명이 만든
새로운 종합보장플랜의 이름입니다

우리아빠가 좋아하는
우리아비바생명

Like
Daddy
보장플랜
1588-4770

www.wooriaviva.com

스티브,
이젠 우리가
세상을 바꿀게요!



세상을 바꾼 당신의 열정에 도전합니다.
세상을 바꾼 혁신을 꿈꾸며 미래의 나라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미래의 나와 만납니다.
스무살 당신이 그렸던 것처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3학년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입생 수시 1·2차 모집

- 원서접수
 - 수시1차 2012. 8.29(수) 10:00 ~ 9.7(금) 17:00
 - 수시2차 2012. 11.12(월) 10:00 ~ 11.16(금) 17:00
 - ※ 우리대학내 수시모집 전형간 복수지원 가능 (단, 고사일이 중복되는 전형은 복수지원 불가)
- 전형유형
 - 수시1차
 - 일반전형 : 전공적성우수자, 일반학생
 - 입학사정관전형 : 공학우수자, KPU리더십, 디자인우수자(신설)
 - 특별전형 : 지역학생학교장추천자, 발명·기능 특기자, 창업특기자(신설), 가족회사, 어학우수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재외국민
 - 수시2차
 - 일반전형 : 교과성적우수자, 차세대선도인재
- 입학상담 : 1588-2036, www.kpu.ac.kr

- ▶ 2010 ~ 2011년 2년 연속 취업률 전국1위(다그룹)
- ▶ 2012 산학협력중점사업 선정(수도권 유일)
- ▶ 교수1인당 연구비 전국5위
- ▶ 2008 ~ 201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 ▶ 2012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선정
- ▶ 2012 앱(App) 창업 전문기관 선정(경기권 유일)
- ▶ 2011 창업선도대학 선정(경기권 유일)
- ▶ 2011 지식경제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



FDA 승인 Category 1 Product For diarrheal and constipation

Sylcon Tab.

(Calcium polycarbophil)



대표이사 박 호 영
(보건대학원HPM총동창회장)

- ▶ 미국 FDA에 의해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Polycarbophil 제제입니다.
- ▶ 자체무게의 60배의 수분을 흡수하며, 기존의 제제와 비교할때 가장 강력한 수분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불활성 물질로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으므로 전신적인 부작용 및 습관성의 위험성이 없어 만성변비의 장기치료에 적합합니다.
- ▶ 기증의 제제와 비교시, 효과가 탁월하고, 환자의 순응도를 낮추는 위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적어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 ▶ 정제로서 과립이나 산제에 비하여 복용이 훨씬 간편합니다.
- ▶ 임신부·회복기 환자·고령자 등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위너스약품(주)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31-15 위너스 BD TEL : (02)333-7983 FAX : (02)333-8034



60th Anniversary
1952 - 2012

60th

HWACHEON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화천으로 나아갑니다.

1952년 기계제조전문기업으로 출발한 화천이 올해로 창립 6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항공, 조선, 자동차, IT산업의 성장에는 화천 공작기계가 있었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대한민국 공작기계 업계를 대표한 기계제조전문기업, 화천-
이제 글로벌 화천으로 나아갑니다.



www.hwacheon.com

신 간

어느 생물학자의

눈에 비친 지구온난화

— 金俊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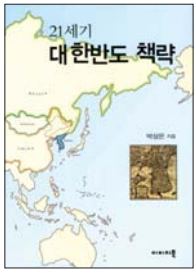
인과 실상을 소개했다.

5부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기후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리학, 해양학, 환경학, 생태학 등 여러 학제간의 문제가 얹힌 지구온난화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이끌어준다. 최근에 발표된 광범위한 문헌에 근거해 지구온난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요즘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회의론을 시정하기 위해 정론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에필로그에서 소개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45,000원〉

21세기 대한반도 책략

— 朴相銀 지음



한 국 보 험 공사 사장, 초대 보험감독원장, 한국리스금융협회장, 안동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한 박

相銀(상학55-61 환경그린코리아 고문)동문이 고대사 탐구 및 현재의 환경에너지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해보며 한반도 대통합의 길을 모색해본 책이다.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한반도의 통합은 남북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 발전과 세계 평화의 틀에서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차동문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나라 일을 걱정해 온 경험과 변화의 세기에 힘의 이동 추세를 조망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현실적인 가능성을 망라하고 있다. 〈이미지북刊·값 18,000원〉

왜란 소설 징비록①②③

— 李繁榮 지음

한국교단문인협회 상임이사를 지낸 소설가 李繁榮(중문56-61) 동문이 임진왜란의 중심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한 유성룡의 ‘징비록’을 토대로 장편소설을 집필했다.

李동문은 10여 년 동안 국내외 사료를 살피고, 명랑해전·한산대



첩·노량해전 등 격전지를 수십 차례 찾아 소설을 완성했다. 소설은 임진왜란의 전말을 풀어나가면서, 당시 임금과 신하들은 무엇을 했는지, 백성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명나라는 과연 조선의 우군이었는지, 이순신과 유성룡은 왜 탄핵당했는지 등 불편한 진실을 입체적으로 그렸다. 〈남남刊·값 각권 13,800원〉

통일교향곡

— 柳光鉉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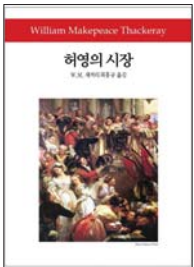


그리고 그 필연성을 목숨을 바쳐가며 증명한 놀라운 이야기를 담아낸 책.

천재 피아니스트 윤정호는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인민작곡가 칭호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한 성악가 최영애가 김일성 부자를 위한 ‘기쁨조’에 차출되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그는 통일을 기원하며 ‘통일교향곡’을 작곡한 뒤 숨을 거둔다. 〈비봉출판사刊·값13,500원〉

허영의 시장

— 崔鴻圭 옮김



1820년대를 배경으로 아말리아 세들리와 레베카 샤프라는 대조적인 두 여자의 얽히고설킨 운명을 그리면서, 인간의 허영과 그 무렵 영국 사회를 통렬하게 풍자한 윌리엄 새커리의 작품을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崔鴻圭(교대원 65-67 교대원동창회장)명예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특정 사회의 묘사나 상상을 통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아! 헛되고도 헛되도다! 도대체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이 있을까?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은들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새커리의 결론을 이해하게 한다. 이 비극적인 모순은 인간의 야심과 경험에 대한 지속적이며 통찰력 있는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동서문화사刊·값18,000원〉

철학적 질문

과학적 대답

— 金熙濬 지음



모교 화학부 金熙濬(화학66-70)교수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과학적 대답으로 정리한 책.

모교의 명품 강의로 뽑힌 ‘자연과학의 세계’ 강의 내용을 포함해 과학의 세계를 종교와 철학, 문학, 예술, 경제 등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우주와 자연과 생명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에서 출발해 현대 과학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알아볼 수 있다. 〈생각의힘刊·값15,000원〉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 李仁德 지음



대차 현장의 다급하고 난처한 사례들을 소개한 책.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나몰라 하는 임대인, 월세를 안내면서 나가지도 않고 버티는 배째라 임차인, 바로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들이다. 이 책은 강자인 임대인과 맞서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악한 임차인에게 당하는 어수룩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1백가지 고민 사례를 제시하고, 속 시원한 해법을 소개한다. 〈부연사刊·값18,000원〉

발과 마음과 혼으로

달린다

— 許廷會 지음



누구나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달리기기를 통해 몸의

모교 화학부 金熙濬(화학66-70)교수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과학적 대답으로 정리한 책.

모교의 명품 강의로 뽑힌 ‘자연과학의 세계’ 강의 내용을 포함해 과학의 세계를 종교와 철학, 문학, 예술, 경제 등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우주와 자연과 생명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에서 출발해 현대 과학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알아볼 수 있다. 〈생각의힘刊·값15,000원〉

서울시 임대차분쟁 상담위원으로 10년째 봉사하고 있는 李仁德(상학67-71)동문이 접하게 된 임

공연

李基延 피아노 독주회

— 9월 23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李基延(기악82-86 세종대 교수)동문(사진)이 9월 23일 오후 5

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가을의 정취’를 주제로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연주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李동문은 이날 슈베르트, 드뷔시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음악교육신문 549-4133〉

鄭善伊 첼로 독주회

— 9월 25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鄭善伊(기악80-84 서울아카데미양상블 첼로 수석)동문이 9월 25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섬세하고 깊이 있는 곡 해석으로 소화해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연주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鄭동문은 이날 포레, 드뷔시, 프랑크 등의 소나타를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진문화기획 2278-6448〉

金正恩 바이올린독주회

— 9월 26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金正恩(기악83-87)동문(사진)이 9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

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한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金동문은 모차르트, 드뷔시,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徐桂淑교수 동문음악회

— 9월 27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徐桂淑(기악56-60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동문이 9월 2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동문음악회를 갖는다.

음대동창회장을 역임한 徐동문은 이날 제자인 李駿星(기악81-85 성신여대 교수)·黃允腴(기악85-89 백석대 교수)·千玄庭(기악88-92 동덕여대 강사)·趙允敬(기악91-95 단국대 초빙교수)·조소연(기악94-98 경희대 강사)·朴宣姬(기악86-90 서울기독대 강사)등문 등과 함께 모차르트, 드뷔시, 피아졸라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지음기획 2265-9235〉

건강과 마음의 활력을 넘어 정신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마라톤 일지를 펴냈다.

사람이 죽을 때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 등에 대해 후회한다고 한다. 마라톤은 저자에게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줬다.

許동문은 2002년 달리기와 인연을 맺었고 10년 동안 풀코스 72회, 하프코스 26회 등을 완주했다. 〈북코리아刊·값12,000원〉

성공하는 리더십의 조건

— 沈良燮·李勉雨 공역



송알송알 沈良燮(동양사학80-87)공동대표가 세종연구소 李勉雨(무역79-83)박사와 함께 리더

십 책을 번역했다.

프린스턴대 석좌교수인 저자 나넬 코헤인은 리더이면서 정치학자

로서 ‘외부적’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적’ 시각에서 리더십에 접근하고, 스스로가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리더십의 이론과 실천, 양 측면을 모두 서술한다.

리더십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리더십과 권력의 관계까지 자세히 다뤘다. 〈명인문화사刊·값23,000원〉

한국의 고용구조

— 尹伯重 지음



동향을 분석하고 조명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공한책을 출간했다.

급속한 기술 개발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고용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 표과 그림을 곁들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유엔아이刊·값12,000원〉

삼화비닐 판매 尹伯重(AIP 4기)회장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 내용을 고용구조 측면에서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2년 7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2. 6. 20~8. 9) · 일반 (2012. 6. 20~8. 9)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상임이사

△金貳煥 안대원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경보 공대85
△강남규 인문84 △강석진 자연80
△강원택 사회81 △강원혁 공대92
△강인호 치대95 △강창희 ACAD22
△구본식 AIP24 △구승엽 의대87
△권희숙 SPAR14 △김광석 AMP37
△김교준 AMP67 △김두봉 경영86
△김문웅 AIP4 △김상호 AMP39
△김성규 AMP29 △김성년 공대68
△김성민 법대55 △김수진 농대92
△김수호 공대76 △김숙희 사대91
△김신용 공대77 △김영인 AMP12
△김용웅 약대86 △김용희 의대88
△김윤명 공대71 △김이환 공대76
△김장민 AMP69 △김재면 의대74

△김정식 의대68 △김정환 공대74
△김종태 공대84 △김중구 AMP25
△김지희 의대88 △김진국 HPM16
△김진일 공대71 △김창균 SPAR18
△김장엽 법대64 △김태정 농대91
△김형만 공대76 △김환영 사회81
△나병현 사대76 △나종현 약대82
△나종팔 AMP6 △남인희 공대77
△노문욱 사회74 △모윤종 공대72
△민동주 사대89 △박 실 문리58
△박경운 의대90 △박기주 AMP55
△박성수 법대86 △박영찬 수의81
△박이순 AMFR24 △박준택 공대92
△박철희 법대92 △박학송 AIC1
△박홍근 사회78 △백희영 생활69
△변동범 경영91 △북진태 문리66
△서명수 법대75 △손문영 ACPM7
△손영민 사대86 △손영준 사회89
△송기창 사대77 △송기춘 법대80
△신근식 공대66 △신영훈 ACAD52
△신원기 공대66 △신정인 사대85
△신준형 인문88 △안상태 AMP46

△안정화 AMP65 △안홍선 AMFR7
△양삼주 공대85 △어수희 음대85
△엄미정 공대89 △오세범 공대72
△오영희 미대71 △오휘영 ACAD8
△원중식 농대60 △유동표 HPM20
△유병우 수의74 △유상열 GLP6
△유성걸 ASP7 △윤계웅 AMP52
△윤광렬 농대84 △윤영석 상대58
△윤정원 농대85 △윤준도 공대75
△이건복 공대72 △이공재 법대83
△이민섭 문리59 △이범희 ACAD68
△이성목 GLP17 △이승훈 치대88
△이영석 사대77 △이영순 AMP45
△이영진 사회91 △이우희 의대86
△이원재 AIP16 △이정양 농대86
△이종구 공대84 △이주연 음대86
△이주혜 음대92 △이창희 자연83
△이철훈 사회81 △이태규 의대82
△이형술 AIP15 △임상호 문리60
△임정민 음대89 △장승혁 자연89
△장영근 AIP29 △장희수 AMP45
△전인하 AFB9 △정귀열 AMP59

△정미화 약대59 △정성환 공대77
△정영운 문리60 △정용화 농대86
△정우남 大院81 △정인근 AMP35
△정인호 인문86 △정재훈 자연73
△정주영 농대87 △조무제 공대87
△조용권 SPAR1 △조재현 의대93
△조창섭 AFB10 △주희성 음대88
△지창훈 사대71 △채수삼 AMP39
△최경하 AIP7 △최문구 치대94
△최일송 사회71 △최창호 AIP7
△최현기 상대68 △추문석 공대73
△탁구현 AIP45 △한 현 의대79
△한기룡 經院71 △한길수 AFB8
△한승희 경영76 △한정연 약대85
△허경희 치대94 △허선욱 AFB9
△현택환 자연83 △홍윤기 AIC1
△홍정의 사회91 △홍주봉 문리69
△황성규 법대81 △황종영 AIP39

(일반) △강성배 AIP46
△강창성 保院99 △고형권 사회83
△김 정 공대04 △김기범 의대94
△김상현 사대66 △김세민 자연04
△김순겸 간호57 △김양국 사대92
△김용수 SPAR2 △김중근 의대70
△김지현 사대03 △김진업 경영04
△김현태 농대84 △김혜영 사대80
△김홍창 경영75 △목승호 법대01
△박영주 상대59 △박주은 문리63
△박준근 공대70 △박찬열 공대80
△박준용 사대73 △박현주 자연07
△손건웅 법대61 △손경희 생활66
△신지희 미대83 △안윤욱 의대66
△안재혁 法院09 △여운돈 수의71
△원도연 법대07 △유호진 자연96
△윤남희 생활03 △윤석환 사회87
△이규화 농대05 △이상운 경영93
△이성희 간호86 △이열기 공대65
△이정남 농대61 △이준길 공대77
△이효흠 법대63 △임윤수 법대89
△임태완 공대05 △장호준 경영01
△전호재 사대04 △정순욱 공대85
△차수명 법대58 △최애영 ALP14
△최인상 법대89 △한경섭 FIP8
△한덕연 사회81 △홍종립 사대61
△홍철우 사회01

이 사

◆인문대 △강상진83 △강창일71
△고인숙72 △김능구81 △김대환84
△김덕출81 △김병철76 △김선아93
△김정환81 △노 찬74 △문상원72
△박명식77 △박수현83 △박태영74
△손예철69 △손종호69 △유국환81
△육동인81 △윤상필84 △윤용복84
△윤호중81 △이강근81 △전원배73
△정재문72 △정희영83 △한봉희77
△홍성범87 △홍성윤73
◆사회대 △강종표76 △권용발74
△김정우74 △김 영79 △김광재90

△김기식85 △김기준77 △김동섭81
△김영빈81 △김영희74 △김용균84
△김창범86 △남기섭76 △류성록82
△문도선83 △박 철81 △박민식84
△박재하77 △박종국73 △박홍배87
△박희영80 △방창식83 △배세달77
△배현기84 △상지원86 △서동영79
△서명국84 △손문호76 △송동섭81
△신봉길74 △신철식73 △심일혁89
△오대영80 △유동근92 △유성엽80
△유철일76 △이동훈74 △이성만75
△이재열80 △이흥영91 △전승철81
△전홍찬79 △정봉교72 △정석구77
△정응균87 △주순식73 △주진혁77
△최금락76 △최범수75 △최익순73
△한용섭74 △한인구75 △홍석규75
◆자연대 △강병도82 △김양진83
△김현근77 △김현식91 △서재영83
△윤재근84 △이덕희77 △이동한77
△이명웅77 △이은용72 △이철의75
△정명식80 △최강원81 △최윤경82
△최종권75 △최진우75
◆간호대 △박선애73 △이명란84
△이병숙76 △이선자61 △조동란66
△홍정희86
◆경영대 △김근수77 △김선구73
△김종환92 △김홍섭79 △김홍준76
△김확식76 △박기환69 △박성환80
△반용음77 △성열우77 △신용삼73
△유경연95 △이동호77 △이원엽87
△이재영78 △이호선75 △임기찬90
△전용주86 △진영근75 △차순관72
△최석원70 △한승희76 △황수연72
◆공대 △강경일75 △강구선63
△강달영87 △강명구89 △강상돈92
△강효순68 △강희신85 △곽병현67
△곽수태78 △구창용60 △권오준02
△권용수81 △김 훈71 △김경배68
△김광옥56 △김광옥62 △김기남77
△김대모61 △김덕재54 △김도심52
△김범석92 △김석주48 △김석흥81
△김성기80 △김성도75 △김성민91
△김수호76 △김연철67 △김영규76
△김영신89 △김인달70 △김재승72
△김정섭77 △김종원74 △김주홍47
△김진기87 △김태문70 △김태선93
△김학세65 △김현이77 △김홍균81
△김홍식76 △남승윤82 △남용민71
△노철균70 △노태욱69 △문석형50
△문영학65 △문호지84 △민경탁71
△박경배67 △박기찬64 △박상봉87
△박상수59 △박상연71 △박성규57
△박신동65 △박영길78 △박영수77
△박용규58 △박용일62 △박의승73
△박재룡68 △박진수70 △박찬민57
△박찬백67 △박찬빈60 △박찬석92
△박창용66 △박대권55 △박현철85
△박홍준71 △박화규77 △배재흠70
△부창렬77 △서남규69 △서동원70
△서원수69 △서태석76 △설재훈74
△성기초51 △손석광75 △송배원75
△송창영68 △송효상71 △신건일63
△신동식51 △신종계73 △신철영70
△신홍현84 △심일보73 △안순신69
△양기정67 △여인갑64 △여인선75
△오세기64 △오창석69 △우상룡72
△원종현52 △윤석구53 △윤세한79
△윤정현89 △윤종섭84 △이 철68
△이강우79 △이계환62 △이능규69
△이동준53 △이명호53 △이봉주67
△이상언81 △이상영82 △이상준76



THE
WAY
YOU

MEET
THE
BEST



지금,
한국자금융개와 함께 하시는 당신은 이미 'Best'와 만난 것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다는 의미이며,
내일의 글로벌 종합 금융중개회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석준83 △이성규58 △이성원58
△이을일86 △이원도59 △이원세71
△이원표72 △이재운63 △이재형76
△이종국87 △이종남73 △이종화76
△이주선64 △이중호70 △이지원81
△이찬홍74 △이춘성71 △이희성70
△이희승60 △임기석63 △장지영75
△장진양67 △전상백53 △정명식50
△정욱희52 △정종철72 △정대영75
△정한모71 △정현교75 △정현일60
△조우수74 △조장현64 △조재열89
△조택호61 △주기태69 △지성규71
△천창호89 △최규현90 △최완철69
△최재열69 △하규성76 △하준환51
△하태흡75 △한광석76 △한재성79
△현희현59 △홍보기89 △홍성일66
△홍호식69 △황 철71 △황석희87
◆농대 △강철기76 △곽유신82
△권재홍83 △김갑철68 △김동태62
△김병운69 △김완기65 △김원보73
△김지훈87 △김택현78 △김풍진71
△리신호74 △명을재83 △명인종73
△문동준70 △박동선58 △박순홍85
△박창언80 △변상지74 △부경생60
△서광섭79 △서기호60 △서병룡69
△서승진72 △서원호74 △손환규64
△송경빈75 △신동현86 △신용석61
△심미옥86 △심용섭70 △염익환78
△오봉국48 △오세인55 △원종영62
△유부열66 △유장열68 △유해강86
△윤동원79 △윤성준88 △윤여두67
△윤여성76 △이건일60 △이광희84
△이규승67 △이규재50 △이상결79
△이상국74 △이상용61 △이성호71
△이승겸75 △이승일85 △이임영81
△이장섭52 △이재진65 △이희수80
△임석원94 △임순만62 △임용택54
△정복현74 △정세진70 △정일성62
△정재용79 △정주영87 △정진구65
△조국광75 △조선종84 △주민영88
△최동하71 △최찬식56 △한갑준52
△한정남65 △현근택90 △홍동선56
△홍순명68 △홍형홍62
◆문리대 △강사욱70 △고영소56
△권혁방65 △김 욱69 △김건중66
△김관식56 △김대성61 △김상복57
△김상진71 △김수진57 △김재민67
△김춘석69 △김치수60 △남광성61
△남영우68 △박용길66 △박용안57
△박정무59 △박하진67 △박흥식66
△방석기62 △배성균56 △석준형67
△신상우64 △신정용61 △심현철68
△안승원68 △안휘준61 △엄경일64
△오완영59 △오재희53 △유덕상68
△유보일60 △유양수57 △윤상철55
△윤홍근63 △이상열71 △이상원71
△이성덕56 △이성우63 △이용태53
△이용태63 △이용화53 △이원영69
△이정길59 △이정남51 △이정수59
△이종한62 △이충희54 △이형구59
△임병석54 △임형택62 △장부일69
△장영수63 △장홍주70 △전종구70
△정규수63 △정기호70 △정낙찬69
△정욱자61 △조완구48 △조창화57
△지경홍60 △진홍순70 △차흥봉62
△채영수68 △최 웅69 △표완수67
△하영식58 △한영우57 △한우석51
△허운옥57 △홍두표55 △홍치모52
△황경호54 △황인광63
◆미대 △강신옥86 △고명진77
△김 정70 △김미혜78 △김민기69

△민철홍54 △성기점58 △손희옥68
△오영희71 △이경렬69 △이종목76
△장윤우56 △전민숙74 △정종해67
△조정송59 △최미영70 △한주연90
△현지연93
◆법대 △강 훈72 △강대석67
△강동세77 △강병섭68 △강석훈82
△강승준85 △강신원72 △강용식58
△강희철81 △고석홍82 △고의영77
△고홍달68 △구창모88 △권순민89
△권영국69 △권오윤56 △권은민82
△김규복69 △김동원52 △김병구84
△김병국66 △김부찬74 △김수철71
△김신택57 △김연곤85 △김영우56
△김영학83 △김완섭65 △김용환60
△김유동86 △김윤성76 △김이수72
△김정학71 △김정후57 △김종상65
△김종윤72 △김준규75 △김준희76
△김진우52 △김진태83 △김대병85
△김태현46 △김현석79 △김형렬83
△김형선57 △김형수77 △김호응72
△김희주84 △노경국02 △류기홍58
△류진열72 △문영길55 △민수광60
△박 만70 △박상일77 △박성규71
△박성진84 △박윤훈55 △박장우66
△박재경57 △박준서58 △박창현73
△박철언61 △박태훈66 △박해봉83
△박형관85 △박홍우72 △변동걸66
△변학남52 △서정석77 △성지용82
△송상규84 △신인식74 △신일규69
△신현일77 △심우영59 △안상수64
△안영수84 △안용득62 △양재식84
△양현주81 △양희영52 △여상원77
△오시열75 △오정면86 △오지철69
△우성만76 △유남석76 △유병규83
△유병한77 △유재선63 △유종걸64
△윤 혁71 △윤교중65 △윤남근77
△윤덕순59 △윤신승88 △윤장석89
△윤준원67 △윤호일61 △윤홍근79
△은현호87 △이건종72 △이규오43
△이대순53 △이무룡61 △이무상78
△이사철71 △이상국90 △이상진70
△이상환78 △이석현71 △이선우61
△이성호76 △이세형68 △이수영74
△이승철81 △이외수63 △이몽우92
△이원호61 △이은종77 △이재근82
△이재성69 △이재철77 △이종순57
△이주성76 △이창복74 △이춘삼67
△이충범78 △이태운68 △이해진86
△임대규74 △임한홍73 △전용학73
△전웅진49 △전창영74 △정경택70
△정구영57 △정덕장59 △정덕홍68
△정세용74 △제차룡60 △조중환65
△조철호91 △조해근78 △조해현81
△주우식78 △지성우66 △최두영93
△최병덕72 △최병륜56 △최석원52
△최신석59 △최연희64 △최영도57
△최완주77 △최정현75 △최종길83
△한 민77 △한광세60 △허순석78
△현경대60 △홍광식67 △홍진태52
△황영선55
◆사대 △강경돈70 △고영신73
△국해웅63 △권 승76 △김경수60
△김두정73 △김상구60 △김성대59
△김수형61 △김영심82 △김영애64
△김원용74 △김재혁73 △김재호53
△김점술82 △김진규58 △김전수58
△김학전59 △박병기81 △박세원70
△박익두64 △박재공62 △박흥일60
△변범식86 △석용진77 △설동균68
△송장섭69 △신차균68 △안창섭61

△안희수61 △여태철84 △오창훈83
△위종진91 △윤익모62 △이광범92
△이동호59 △이봉수74 △이상락67
△이성영81 △이언숙89 △이원강57
△이재민79 △이정식72 △이준동60
△이진구71 △이창득71 △이환기81
△임광수68 △장정현78 △장춘화83
△전택수71 △정강주69 △정공수69
△정기언72 △정용길77 △정재정70
△정창석73 △정철수68 △정희성82
△조경오75 △조용복55 △최동환72
△최영상56 △최운식63 △최준명60
△한도연49 △형남규67 △홍석영85
◆상대 △강승규65 △고두모57
△구선희56 △구영보69 △구정희57
△권오규71 △기병태53 △김덕기52
△김명수73 △김명준62 △김병식68
△김영섭66 △김영춘71 △김영환54
△김원길61 △김윤환67 △김장수68
△김하두64 △김항덕59 △나진원67
△남영태65 △문영도50 △박성석61
△박종민64 △박태하58 △박해룡58
△배경일69 △배정운59 △배철호68
△백정기71 △변병주60 △서정도66
△서주성44 △서충석71 △송국현56
△신명수60 △신승철59 △신정철63
△신평재57 △안재전56 △양승우68
△엄수명61 △우두현61 △우순규53
△우완식57 △우찬목55 △유석홍61
△유원영57 △윤석현67 △이갑현61
△이구수57 △이동혁65 △이상근53

△이상윤62 △이승웅60 △이일훈55
△이종백69 △이태형59 △이태환58
△이항철54 △장운문65 △장종록57
△전문준64 △정재택58 △정대웅67
△조덕찬53 △조영삼71 △조원래57
△조중현62 △조창제57 △차태균71
△최도성70 △최동건70 △최수일55
△현정택67 △홍영기57 △황 훈68
◆생활대 △김성은83 △박지영87
△여의주82 △정영진68 △조혜옥59
△황수현04
◆수의대 △김경환80 △김계방61
△김인호53 △김진구61 △나종극54
△서강문82 △신 심67 △오효성77
△이성모78 △이수창61 △하태은80
◆약대 △강 서58 △김미희84
△김상조54 △김선준61 △김성오81
△김영택58 △김재환68 △노동출78
△박시우69 △손인자69 △심우원72
△안병목68 △양현하66 △우중균61
△원희목73 △윤병길71 △윤웅찬68
△이선구90 △이용연72 △임경택52
△임종석78 △장석윤79 △정현경83
△정희용76 △조영준69 △조정식62
△조중현68 △주승재86 △최명식64
△최선식64 △최진근77 △한병현77
△홍성한76
◆음대 △강덕원69 △김인규65
△김혜중69 △문정원88 △박세나90
△손국임64 △신정화87 △유형웅60
△이명희68 △이방실92 △이선이84

△이신화61 △이영심78 △이오규70
△이재숙59 △이혜정81 △전신주67
△정복주66 △정영안92 △조창연66
△차정현67 △최승준65 △황응준87
◆의대 △강승백82 △강재훈88
△강형용44 △고영채74 △김광희55
△김규한76 △김근우61 △김동수83
△김명호68 △김성덕65 △김성오87
△김세엽70 △김영균43 △김용봉70
△김인호71 △김재윤79 △김정식68
△김지현89 △김한수82 △김환규78
△남도현84 △목정은60 △문대혁76
△문태준44 △박경환71 △박도준81
△박성숙65 △박영태70 △박종명69
△박호진72 △백태진74 △전우대환71
△성상현73 △손기섭51 △손봉기73
△손정민87 △양성범75 △염명걸74
△오경균67 △오승환56 △유세화65
△유영성70 △유재란84 △윤준기93
△이갑순55 △이계평59 △이관희75
△이근장90 △이병훈60 △이부영52
△이성규72 △이송덕83 △이영돈73
△이의용72 △이정길63 △이종복79
△이종호81 △이충원76 △이태연92
△이현구74 △임대정91 △임태환70
△전성환74 △정규병65 △정동철54
△정을삼60 △조경환52 △주영수84
△최 윤76 △최인호70 △한규섭72
△한덕종69 △홍기정81 △홍성출89
△홍순우85 △홍영식61 △황용승69
◆치대 △강효식57 △권오균71



공공기관
대한민국 선포터즈



World's Premier Exchange Prospering with Customers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인사처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행복한 거래가 있는 곳.
한국거래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함께할수록 더 커지는 미래
KRX는 나눔입니다

KRX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김능세70 △김석연68 △김윤이73
△김장현77 △김정욱83 △김종태70
△김태의60 △김현제87 △김현태76
△남용욱51 △남태우76 △목성규81
△박기성55 △박수훈79 △박순억66
△박연천72 △박용준54 △박용한78
△방수남62 △배현성64 △백순지63
△백승진75 △서명우83 △서성구74
△서학원74 △손 근71 △손영경86
△송명욱86 △송재용82 △신동인76
△신언일71 △안건모83 △양재호64
△양재희75 △유병도56 △유태영63
△윤학영62 △이만선66 △이만희83
△이병우76 △이복상81 △이봉재56
△이봉호86 △이상표77 △이성출70
△이수구66 △이승종69 △이원재72
△이윤상59 △이종호79 △이진결77
△이창우75 △이정룡70 △이현석82
△이호정86 △임성수60 △정관서79
△정대현69 △정재영70 △정철표74
△조경석79 △조인호70 △조행작64
△진기열77 △최순철73 △허재식93
△홍정임87 △황의강61
◆대학원 △가순일94 △권병남81
△권호기83 △김경진84 △김문한79
△김석웅81 △김승호83 △나병만77
△문형근79 △박영득82 △서상혁79
△송현호82 △신호수85 △심정보83
△원상봉83 △유장훈86 △이범수85
△이병갑75 △이사목52 △이상엽86
△이시운81 △이효수84 △임우택87
△전병서84 △전용기82 △정기화71
△정병희52 △최원화81 △황인자78
◆경대원 △김일란69 △김정태68
△김한준89 △임인규88 △장몽인66
◆교대원 △송향섭64 △장석민70
△정병관69
◆보대원 △구성희67 △김윤신72
△김진한87 △박희서77 △정상호99
△정진택84 △최영아74 △최진석86
◆사대원 △석용진65 △이원형64
△정경식63
◆신대원 △조용직70
◆행대원 △김익영68 △남상우73
△이경훈76 △이시경79 △장성호85
△장준규65 △최순현73
◆현대원 △권 완76 △김연명85
△김제성78 △박종일84 △석영철71
△정병한69
◆AMP △고시목8 △권오석61
△권용관53 △권점주65 △김세래46
△김영만65 △김영활34 △김진섭9
△김관진53 △남중철48 △박달용4
△박인상28 △서종덕12 △서호근60
△석 강61 △성승모1 △손병준68
△송학성63 △신동대35 △신용문68
△신재덕49 △심계진36 △심학봉70
△안정화65 △안희관56 △오병제21
△우정욱37 △유병운23 △유시수25
△유재열35 △유중근4 △유한섭23
△육신학57 △윤수복63 △윤용암66
△이규식54 △이원구50 △이용표36
△이재형59 △이하우69 △이한규23
△이현구52 △전현찬44 △조형수58
△지대섭56 △하정길6 △한종희28
△허덕령2 △황복현45 △황의영59
◆AIP △고희수25 △권영렬19
△권오열22 △김경수39 △김영대44
△김완희34 △김윤종31 △김장근15
△김정수43 △김종필40 △김휘중41
△류승영34 △박몽식16 △박무광43

△박상수42 △박양신20 △박영식28
△박종호9 △서영복19 △신용기9
△심영복38 △원근식43 △유길상9
△윤명수30 △윤여순27 △이덕영23
△이상길41 △이석준27 △이선재42
△이의현20 △이종호31 △전이현42
△주영현12 △최순규36 △최원태26
△최창호7 △추현식32 △홍재성40
△황이남22
◆ACAD △권도중49 △권영호60
△김 진65 △김경래18 △김광수68
△김광철47 △김상태45 △김우연14
△김정록73 △김철환46 △명재선60
△박명규40 △박성득20 △박인복47
△방동식27 △배상철67 △이강국63
△이상영40 △이원영11 △이재복21
△이진영56 △이희수49 △전병순42
△정송학54 △조건창49 △최철규68
△한성열67
◆ABP △김성일15 △김수동32
△김영균15 △박대영30 △심형보16
△양종하19 △이계용2 △이상래24
△이관철3
◆SGS △김봉규25 △김수근2
△박종인5 △정병재5 △조승연25
△최상석2 △황용연2
◆APC △이상진9 △조갑환9
◆HPM △권기진8 △김광화9
△김민규23 △김홍구12 △노동일7
△박천표11 △방금석2 △배영봉14
△양동근12 △엄신흘14 △이석기14
△이정희12 △이천수9 △이충섭8
△전성혁13 △정수경26 △정지문14
△정호용8 △주영진2 △최병례21
△최병용9 △최종환10 △한훈섭10
◆AMPP △강철환10 △나종팔6
△송실광7 △최종식6
◆AIC △김동현25 △김운식29
△김정구3 △김형준24 △박인주7
△박종렬3 △배대현25 △백재현4
△신철화22 △웅상순7 △이인기11
△이정재2
◆AFB △곽 후10 △길경일6
△김관택10 △김규태1 △양근영10
△이동락1 △이영두9 △장세영8
△정일진10 △조창섭10
◆AMPFRI △강동원27 △강태호22
△김병문17 △김정훈1 △박재호23
△이병윤26 △임한택6
◆ACPMP △김기식6 △김범용6
△김승택6 △김재호6 △남관우5
△우순곤7 △정재훈7 △진성의4
△하대청5 △한남희5 △형병택6
◆FIP △김기종8 △서덕화2
△양태운4 △우영대7 △정재익2
◆GLP △강병섭21 △권덕수15
△김경식2 △김영숙16 △김용태17
△김중대20 △김창송21 △김형중17
△류명선21 △박세연20 △박영식18
△서승욱19 △신명진13 △양재길5
△윤경상22 △윤여표11 △이동진16
△이동향9 △이승구15 △이용문17
△이용섭18 △이원욱11 △전인해14
△전진규16 △정해연17
◆ALP △권동환2 △김경일3
△김재현2 △박 찬12 △백정기6
△소진세12 △손용근6 △신영숙8
△조규상10 △황은연12
◆SPARC △김경호17 △김달수1
△김인환2 △김창균18 △김청자13
△김학준16 △박찬욱18 △신진문12

△오현규18 △유승만3 △이덕록7
△이영환16 △이의시9 △장재진2
△장효상11 △전용갑14 △정삼진18
△정운호9 △최동관19 △허상록11
◆AFP △이장식6 △정일채8
△조원국5
◆ASP △김종배11 △민병렬13
△박종득9 △유성결7 △채수철15
◆IFP △배양숙2 △이호진5
◆BCP △윤경주4

일 반

◆인문대 △김정호90 △노민혜08
△심윤남82 △오승하07 △이상근97
△장수현98 △정준모89 △정지윤06
△채려복04 △최완석98
◆사회대 △강지원07 △김규수87
△김슬기06 △김연광80 △김지혜04
△문지혜06 △박광호80 △방동욱00
△송인권72 △이민호84 △이승호05
△전주현90 △정용학78 △최문성04
◆자연대 △김광영86 △김지환92
△김진복74 △김태윤05 △노주철07
△류승호07 △박대열68 △박지훈06
△송고홍00 △윤상훈05 △이동우08
△이미선08 △이지희84 △임병호05
△조준형03 △주성재08 △채현우07
△최인호08
◆간호대 △곽월희74 △김기자56
△김다영07 △전귀능83 △홍여신51
◆경영대 △김종우83 △박용환72
△서동규84 △이현우83 △임성규77
△장호준01 △최광천06
◆공대 △강봉돈71 △강인규73
△강창범08 △곽두영05 △구정진02
△권기동63 △권동현08 △김대식06
△김상규59 △김상원94 △김용백61
△김유희57 △김정일86 △김종열78
△김주만91 △김창수58 △김통호70
△류기수86 △류지현92 △류철호92
△문준영06 △박경수76 △박기철72
△박병엽71 △박준현07 △방석영08
△배오섭72 △백창기02 △서두석71
△손진호06 △송재규55 △송재학05
△송철상61 △신현식50 △심훈섭05
△안학수50 △염승호78 △염규섭56
△염희택46 △윤경목01 △윤형돈94
△이광복67 △이근환05 △이석규57
△이승욱56 △이용희71 △이원모00
△이재준03 △이종수82 △이창민02
△이현식61 △이현웅01 △이희영76
△임달연48 △임채원04 △임형준04
△전경식06 △전영동05 △정동섭64
△정병호05 △정상구73 △정재준90
△정치권60 △정호규80 △조대현81
△조수니07 △조승제56 △조태익78
△최동석98 △최명진08 △최병일86
△최성범05 △최호병60 △최희정61
△편도권54 △한정빈63 △홍훈기00
△황준기67
◆농대 △강원봉77 △김갑균65
△김경환05 △김남훈58 △김민지08
△김영각49 △김영길53 △김영달56
△김영철59 △김한석66 △김항립03
△김희국72 △남현석81 △류운형71
△박숙규48 △박창용55 △박대식68
△박혜진07 △백양빈58 △변양석59
△서원수58 △서정혁03 △성낙근79
△송환창46 △양승엽52 △양종성57
△오무영55 △오영훈73 △우창명66

△원하연64 △유성곤63 △윤종선84
△이규형50 △이길상06 △이동구66
△이동열01 △이명훈08 △이상욱56
△이원재80 △전석수62 △정춘희57
△조준기54 △최원규64 △태용문82
△하맹종58 △하현팔68 △한기학52
△한태수65 △홍석인57
◆문리대 △고인석56 △곽영훈60
△권순식65 △김동진62 △김수춘54
△변광수65 △성만용53 △신효순61
△심사수54 △안삼환62 △이덕주66
△이상근59 △이선숙69 △이용길62
△이정복51 △이종무58 △이현기54
△이희택66 △전만수55 △조봉계61
△천병희56 △최규봉53 △최동진54
△황재운53
◆미대 △김지인07 △서주희89
△손복희67 △신현경79 △정상원58
△정혜인08 △조형석05 △황인혜65
◆법대 △곽종훈71 △김규연61
△김남수64 △김동익53 △김세돈72
△김소연04 △김영균57 △김정준02
△김종정57 △김종양65 △김철진50
△김해영83 △남기룡56 △박교선82
△박상근60 △배화승60 △서원태67
△오동근87 △유병순55 △이권형00
△이보미07 △이용남59 △이용범58
△이용우60 △이유진06 △이정렬96
△장순욱84 △정만조55 △조봉근58
△조주운56 △최규홍80 △최종립54
△한주상63 △홍종현64 △황선표59
◆사대 △권오현71 △김다림95
△김영석64 △김진철68 △김태영60
△노희정06 △민영업55 △박희문56
△송용기69 △신각범54 △신상인03
△안문신55 △염도균59 △유병호48
△윤석원68 △이가혁06 △이길오73
△이길자63 △이성근76 △이시정54
△이윤하63 △이재만52 △이제용60
△이태웅71 △이현복58 △정희수49
△주경식68 △채영자61 △최영림76
△한기선71 △한창림59 △한희숙82
△황성현81
◆상대 △강종우62 △구자홍68
△김규식54 △김두산57 △김영하61
△김용민70 △김운재53 △김진주60
△김형주51 △노병태61 △박영주59
△송정위60 △송주식46 △신동현56
△위봉택62 △유재윤68 △윤상규57
△윤호중52 △이동원51 △이재덕71
△이정권57 △이해웅55 △전장원56
△정덕화56 △정문화71 △정호용52
△조성일62 △최병로49 △최준환66
◆생활대 △김동연06 △류국영84
△박미연04 △이소영08 △조혜자60
◆수의대 △고의식56 △김명석08
△김영목51 △김진영60 △우창현75
△조기형49 △조형기54 △조희택52
△홍소균01
◆약대 △김병규68 △김원선54
△김태윤55 △문창규59 △박명호53
△박영선50 △배종철69 △송희성60
△윤홍중55 △이정자60 △정순간58
△정환수51 △조윤욱85 △황봉자61
◆음대 △강미증73 △김금수76
△김기홍80 △김신해06 △문영애65
△서윤진94 △서은령80 △유지선08
△이정현00 △장해리82 △조현식07
△최선아96
◆의대 △강동완08 △구본희54
△김기범94 △김득구50 △김수경81

△배현미06 △백낙형54 △서동엽68
△서정기67 △위정봉56 △유언호54
△유장희62 △정용화56 △정항보81
△조관재08 △최승호08 △최영호86
△최충신61 △하제철08 △홍정룡69
◆치대 △강정규58 △김선일58
△김우성62 △김주관66 △김평일72
△김효순68 △유세창51 △이경모76
△이장훈57 △이화준83 △정인환60
△주광섭73
◆대학원 △김선대84 △김현탁82
△손정모83 △이수형78 △이은성83
△이정도67 △이종규88 △최정석77
◆경대원 △박영휘90 △신인철68
◆국대원 △강상준02 △정재림03
◆법대원 △문민영03 △민창욱03
△장준혁03
◆보대원 △류문진92 △신금호72
△여현태65 △최용아67
◆행대원 △김재윤83 △이원기67
△이윤빈08
◆현대원 △윤진수96 △이춘택71
◆AMP △강은채44 △권국주38
△김용환72 △김정식39 △류동현57
△민상기25 △박근학51 △박승준59
△박원식66 △백석기27 △성백영64
△신문범23 △신상길18 △우태명5
△이상택40 △이연창72 △이종학13
△정상봉24 △전병섭10 △최병면41
△최종욱15 △하용득71 △홍종대4
◆AIP △김평순46 △박지홍46
△신길웅10 △이은택6 △이정열46
△장희천20 △정진욱34 △진영환9
△채대석15 △허정수46 △황구연38
◆ACAD △고재정30 △권병주56
△신태용73 △심재금73 △이승복73
△이종보41 △장덕배71 △지태욱20
△채명기66
◆ABP △김원태5 △박길태11
△백형욱36 △황승환30
◆SGS △강중원20 △김관욱18
△김명수2 △김재경1 △황선주27
◆APC △유수형7 △이범희3
△이우용3
◆HPM △김남수14 △김상용12
△배금자24
◆AIC △구관서28 △왕진원11
△이성일32
◆AFB △류형우9 △이광연9
△홍경래11
◆ACPMP △조종수1
◆FIP △황국현00
◆GLP △권갑현18 △김상복21
△김연식17 △김태형9 △김형아21
△박옥영14 △박종희18 △신태호18
◆ALP △최애영14
◆AFP △이동영9
◆ASP △김영희21 △유병철8
△조현익12
◆IFP △조용우4
◆BCP △박정수3

7 월 계 : 81,769,911원
평생회비 : 81,800,000원
입 회 비 : 370,000원
총 계 : 810,688,911원





HERITAGE 7002 금강제화 명동 본점, 강남 본점 및 주요 단독, 백화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 02.530.7145 www.heritage.co.kr





OPEN MY STORY!

이야기 한다는 것 이야기 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기에
이제 삼성이 생각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 곳



[삼성 임직원과 영상성 열정운영진 여러분들입니다]

SAMSUNG BLOG & TWITTER & FACEBOOK

삼성블로그(www.samsungblogs.com) 트위터(twitter.com/samsungin) FACEBOOK(www.facebook.com/samsung)



삼성